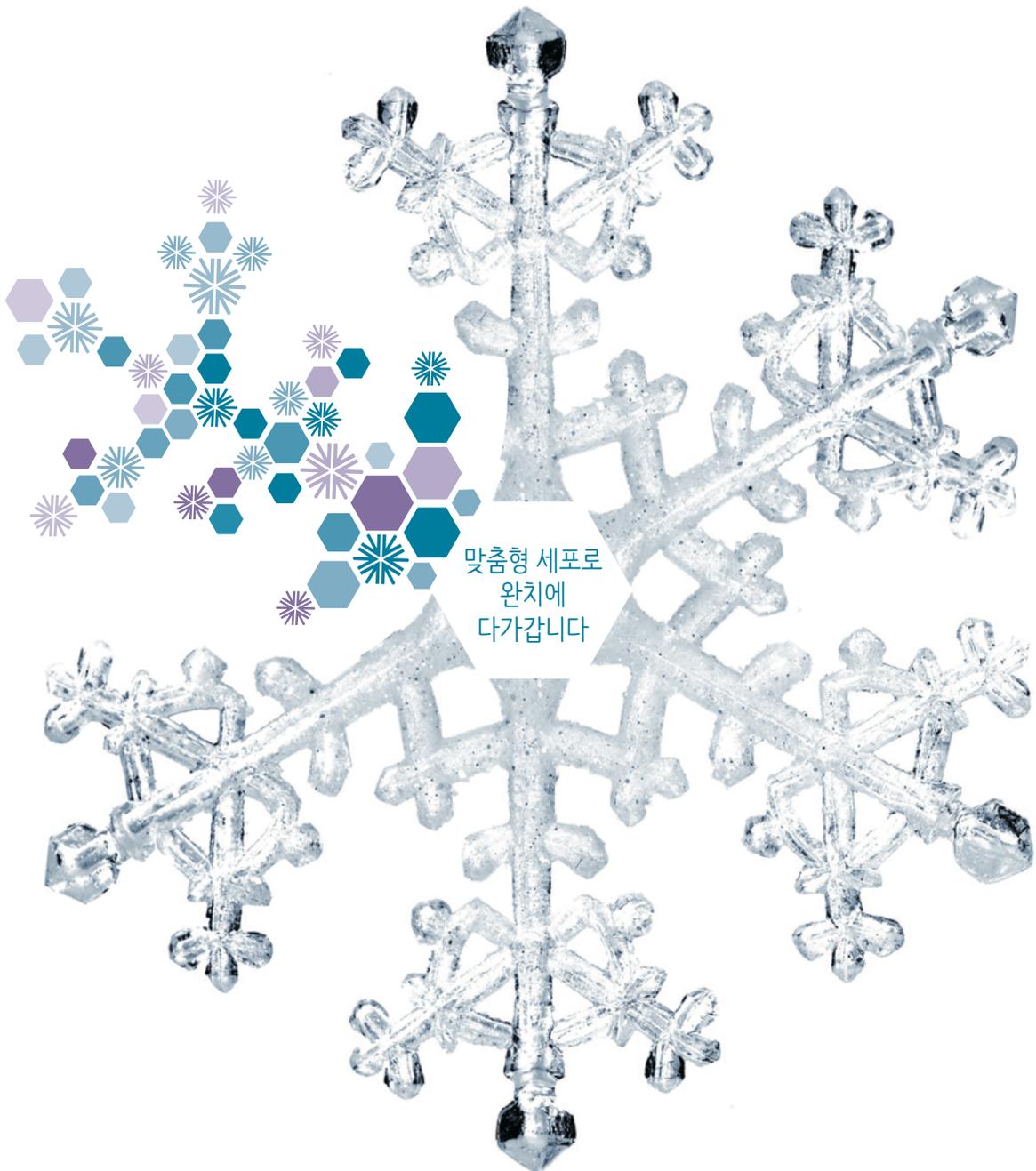


Vol.142 2016 November / December

Special theme

줄기세포, 맞춤형 치료 시대가 도래하다

사랑은 실천하는 병원



맞춤형 세포로
완치에
다가갑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6

줄기세포, 맞춤형 치료 시대가 도래하다

환자의 개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진화하고 있는 의료 현장 속에서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11+12월 호 스페셜테마에서는 환자의 몸에 필요한 기능으로 분화하여 재생을 돕거나 면역을 정상화시키며 지금까지 완치가 요원하게 보였던 난치성질환의 극복 가능성을 높이는 줄기세포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의 의학에 적용될 줄기세포의 구체적 모습과 더불어 세포치료센터 등 전문 기관 운영으로 줄기세포 분야를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청사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김 경 현

김 경 현



어느새 또 한 해가 지나고 1년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해의 여름처럼 겨울도 무척 추울 것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옷깃 잘 여미시고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니, 2016년은 한양대학교 의료원에게 아주 뜻 깊은 해로 기억이 될 듯 합니다. 한양대학교 병원은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프로세스 확립, 2016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 선정을 받았습니다. 개원 21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역시 응급의료센터가 '감염병 안심' 센터로 새롭게 탄생하고, 다채로운 지역 참여 활동의 폭을 넓히며 우리 의료원의 정신인 '사랑의 실천'을 널리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결실을 기반으

로 내년에는 더 크고 높은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의 발전에는 안 보이는 곳에서도 꾸준히 연구하며 의학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의료진들의 땀방울이 있습니다. 이번 11+12월 호 스페셜테마에는 이런 최근의 성과 중 하나로, 난치병 치료의 새 장을 열고 있는 줄기세포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줄기세포라는 이름에는 이미 익숙하실 텐데, 이번 스페셜테마를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며, 무엇보다도 한양대학교의료원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의 한 해가 건강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늘 곁에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즐거운 편지 | 더 큰 비전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 박진규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08 Love, Life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6 구리코스모스축제 '건강축제 한마당'

줄기세포, 맞춤형 치료 시대가 도래하다 줄기세포로 극복하는 난치병

14 뇌 신경계 질환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다 | ① 신경과

16 루푸스 환자의 이상 면역 문제를 해소하다 | ② 류마티스내과

18 뇌성마비 치료, 제대혈로 가능성을 열다 | ③ 소아청소년과



20 Hanyang Topic | 한양대학교병원,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 획득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 영화 <올레> 속 '간암'

26 베스트 파트너 |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안진균 피부과

28 Dr. Opera |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파르지팔>

30 Dr. Movie |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 에드바르트 뭉크의 '우울증'

34 고마운 당신에게 | 박찬혁 소화기내과 교수님께

36 오늘의 건강강좌 | 유방암, 미리 알고 예방하자!



37 Hanyang News | 브라질 인코르병원과 원격의료 설명회 개최 외

40 언론 속 한양인

42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진료 시간표

발행처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발행일 2016년 11월 1일 통권 142호 발행인 김경현 주소 04763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대표전화 02-2290-8114 Homepage www.hyumc.com 기획 대외홍보팀 02-2290-9532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에서 펴내는 격월간 매거진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 홈페이지와 블로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편물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양대학교의료원 의료진의 '喜怒哀樂', 의사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두근두근 심장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손길

박진규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교수

심장은 예로부터 생명 그 자체를 뜻했고,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박진규 교수는 생명이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지지 않도록, 환자들의 아픈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뛰고 있는 심장처럼 환자를 향한 그의 마음도 열심히 채워지고 있다.

글. 황원희 사진. 김지원



“응급환자 중에서도 특히 젊은 환자를 볼 때면 마음이 더 아파요.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도 만나게 되니까요.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 환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의사 }

지난 2015년 심혈관과 전신혈관의 진단은 물론 내과적 중재 시술과 외과적 수술까지 가능한 복합 진료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수술 시대가 열리면서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는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최신 장비와 무균 수술실의 도입은 물론 부정맥 시술을 위한 전문 의료진을 충원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 속에서 부정맥 시술을 담당하는 박진규 교수도 한양대학교병원에 합류하게 됐다. 그는 시술적 치료를 통해 부정맥의 완치를 돕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과거와 비교하면 부정맥 치료 방법이 다양해졌어요. 이전에는 부정맥 치료를 위한 약 자체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시술도 거의 없었거든요. 최근 들어서야 부정맥 치료를 위한 시술이 가능해졌고 덕분에 부정맥 환자분들은 몇 시간의 시술만으로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정맥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심장 질환의 한 종류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100명당 4명

정도가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심방세동을 가지고 있고, 80대 이상의 경우 10명당 1명이 부정맥을 앓고 있을 정도로 환자의 연령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심방세동은 노화 현상의 하나로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노화를 막을 수는 없듯 질환 자체를 예방하는 건 불가능하죠. 다만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병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끔 발생하는 부정맥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 약을 먹는 불편함 대신 시술적 치료 한 번으로 병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박진규 교수는 환자의 완쾌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술을 받은 환자들 사이에서 다시 진료실을 찾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부정맥 환자가 시술적 치료를 받은 후 완치가 되면 더는 병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공 심장 박동기를 장착한 환자가 아닌 이상 시술 후에도 계속 제 얼굴을 마주하는 환자가 있다면 아직 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자가 병원을 계속 방문하는 일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부정맥은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 호기심이 진솔함으로 물드는 순간 }

모든 것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다. 인체에 대한 궁금증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고, 의과대학에서 배운 심전도학은 심장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박진규 교수는 환자들의 아픈 심장을 어루만지는 심장내과 의사가 되었다.

“진단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CT나 MRI 등 다양한 영상 장비를 활용해 각종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부정맥은 심전도 검사 하나만으로 대부분의 진단이 가능하죠. 과거부터 이어져 온 진단 도구인데 A4 용지 한 장에 보이는 기록만으로 복잡한 부정맥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에요. 간단한 진단 도구로 복잡한 해석을 내놓는 과정이 힘들지만 재미있거든요.”

심전도의 매력에 빠져 심장내과 의사를 업(業)으로 삼게 된 박진규 교수이지만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를 마주할 때면 그도 안타까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응급환자 중에서도 특히 젊은 환자를 볼 때면 마음이 더 아파요. 치료를 잘 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끼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도 만나게 되니까요. 환자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박진규 교수는 부정맥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질환에 대한 환자 및 환자 주변 사람들의 인식 또한 중요하다고 말한다.

“심정지로 응급실을 찾은 남성 환자가 있었어요. 응급 수술로 심장은 살렸는데 뇌사 상태에 빠져서 결국엔 세상을 떠났죠. 심정지 상태에서 너무 늦게 병원에 오게 된 경우였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발견 즉시 심폐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가 이뤄졌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날 호기심에서 시작된 박진규 교수의 업은 세월이 지나며 진솔함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자신의 만족이 아닌 환자의 삶 그 이후를 생각하는 의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 환자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일 }

“환자 대부분이 부정맥이라는 병에 대해 잘 몰라요. 이 질환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낯설어하죠. 하지만 질병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치료도 계획대로 이끌어 갈 수 있기에, 처음 환자를 만나면 항상 부정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요. 그것이 부정맥 치료의 첫 번째 과정인 셈이죠.”

부정맥은 낯설다. 환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부정맥은 친근하지 않다.



박진규 교수는 치료를 시작하기에 앞서 환자가 자신의 병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신의 병이 어떤 병인지 인지하지 못한 채 무작정 약을 먹어야 한다면 환자는 병을 이겨내야 할 뚜렷한 동기가 부족한 채로 치료를 이어가게 되고, 의사는 병을 이겨내려는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최대한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병에 대한 이해 없이 치료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질환의 심각성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극복하려는 의욕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또 대부분 만성질환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지만 안부를 묻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환자가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환자의 마음마저 어루만지는 박진규 교수는 좀 더 많은 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진료과의 협진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

“뇌졸중 환자나 수면무호흡증 환자 등 부정맥과 연관된 질환이 꽤 있어요. 관련 진료과의 협업을 통해 환자 중심의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면 부정맥뿐 아니라 다른 질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진료 체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만,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결국, 이 모든 것은 환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일이나니까요.”

의사의 최종 목표는 환자의 건강, 환자의 행복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박진규 교수는 이 목표를 위해 환자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덕분에 그들의 심장은 오늘도 건강하게 뛰고 또 뛰다. 🍎



“병원 내에 정말 많은 조직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니 모두가 즐겁고 병원의 다양한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코스모스 향기가득 함께 즐기는 ‘건강’ 나들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016 구리코스모스축제 ‘건강축제 한마당’

올 가을에도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을 따라 코스모스가 만개했다. 이 계절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을 축제, 제16회 구리코스모스축제가 9월 넷째 주에 열렸다. 그 둘째 날인 9월 24일, 유난히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과 쏟아지는 햇살 아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의료진도 축제의 현장에 모였다. 작년보다 더 알차게, 한결같은 애정이 담긴 프로그램들로 코스모스축제를 찾아온 시민들을 위한 ‘건강축제 한마당’의 막이 올랐다. 글 박여민 사진 노상욱

코스모스와 함께, 건강 축제의 시작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하 구리병원)은 2012년부터 꾸준히 구리코스모스축제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과 구리코스모스축제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무료 건강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올 축제의 날을 위해 구리병원의 교직원들은 가을이 오기 전부터 남 몰래 맘을 흘렸다.

2016 구리코스모스축제에 마련된 구리병원의 부스는 총 10가지.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가요’, ‘노후를 건강하게’, ‘소중한 내 몸, 내 스스로’라는 3개의 테마 아래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있는 의료 체험, 노령층이라면 한 번쯤 해 봐야 할 다양한 검사, 그밖에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기본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해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오전 9시.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국민체조의 음악과 함께 우렁찬 구령소리가 높은 하늘에 울려 퍼졌다. 연두색 조끼를 입은 구리병원 교직원들이 모두 무대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섰다. 하루 종일 진행될 행사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 몸풀기 체조는 필수. “코스모스축제를 찾는 시민들을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직원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박원경 구리병원 부원장의 격려사를 마치고 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늘 행사장에 모인 구리병원의 교직원은 250여 명. 주말도 반납하고 이른 아침부터 모였지만 서로를 격려하며 시민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들의 표정이 밝다. 개회 프로그램을 마친 중앙 무대에서는 HY밴드의 흥겨운 음악이 분위기를 돋운다. 이제 모두 함께 축제를 시작할 시간이다.



건강을 확인하는 경쾌한 발걸음

입구에 들어선 시민들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부스는 정형외과에서 준비한 '골절 없는 세상'. 간지 검사를 통해 골다공증 정도를 파악하고 의사와의 간단한 상담도 할 수 있다. 발과 뼈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옆 '당신의 걸음, 안녕하십니까?'에서 계속 이어진다. 재활의학과와 류마티스내과, 통증의학과가 함께 마련한 이곳에서 시민들은 걸음걸이 분석과 자세 교정을 받고, 필요한 영양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 류마티스내과 이혜순 교수는 "일반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검사를 받아보고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치매조기발견검사' 부스는 신경과와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와의 합동 작품이다. 노령 인구가 늘어드는 구리, 남양주 지역을 배려한 맞춤형 부스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치매 가능성을 보이는 사람들을 추려낸다. 오전에만 50여 명이 방문, 그 중 7명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앞선 부스들에 어른들의 관심이 몰리는 동안, 어린이 참여자들은 직업 체험에 여념이 없다. 간호국에서 준비한 '나의 꿈! 나는 건강 지킴이'에선 어린 꿈나무들을 위한 간호사, 의사 체험을 준비, 아이들에게 멋진 의료인이 되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올바른 손씻기 코너를 추가, 갈수록 높아지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관심까지 이끌어냈다. 약사국의 '약사 체험 및 의약품 안전사용' 부스에는 알약 초코볼, 오렌지 주스 물약을 소분하는 고사리 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약제팀 김희숙 팀장은 "병원 내에 정말 많은 조직이 있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하니 모두가 즐겁고 병원의 다양한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 '아토피&알레르기 바로 알고 관리하기'에선 알레르기 검사가 한창이다. 주변의 흔한 집먼지 진드기와 가을철에 심한 참나무, 환삼덩굴 등 8가지 알레르기에 대한 반응 검사와 함께 상담이 이어진다. 검사라면 고개 먼저 돌리던 아이들이 스스로 팔을 내미는 모습에 엄마들의 표정에 안심한 기색이 역력하다.

모두의 곁에서 함께하는 의료 서비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장 오랜 줄이 이어진 '비만 당뇨 클리닉'에서는 혈당과 체지방검사가 진행됐다. 구리병원의 대표 명의 내분비대사내과 이창범 교수도 오전부터 나와 시민들에게 비만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기본 시력 검사와 함께 색각, 변형시 검사 등 '눈'에 관한 다양한 검사가 준비된 '다양한 시력검사 체험', 구강위생교육과 칫솔질 및 치실 교육이 한참인 '치과, 아름다운 미소를 위하여' 부스에도 하루 종일 꾸준한 발걸음이 이어졌다. 치과 김윤영 교수는 "최근 바편 임플란트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며 바편 와중에도 만족감을 표했다. 건강 부스를 돌며 생각지 못한 질환이나 의심이 가는 경우를 발견했다면 '이름 만큼 건강한 삶' 부스에서 즉시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다. 특히 부스 뒷편으로 X레이와 심전도 검사기를 갖춘 버스까지 준비, 필요 시 즉석에서 해당 검사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끊이지 않는 중앙 무대 행사와 약 2시간 간격으로 진행된 경품권 추첨이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이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최신 PET-CT 검사 검진권 등이 추첨을 통해 축제를 찾은 시민들에게로 돌아갔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구리병원은 이렇게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길 바란다. 언제나 시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가을이 올해에도 진하게 깊어간다.🍁



Mini Interview

김재민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



"우리 병원이 구리코스모스축제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구리와 남양주 시민 그리고 이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건강 지식을 심어주고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축제에 참여한 250여 명의 교직원들께도 감사사를 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준비된 다양한 체험을 충분히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시민들에게 먼저 다가가며 지역을 위한 의료와 사랑을 실천하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봉사하겠습니다."

조은서 님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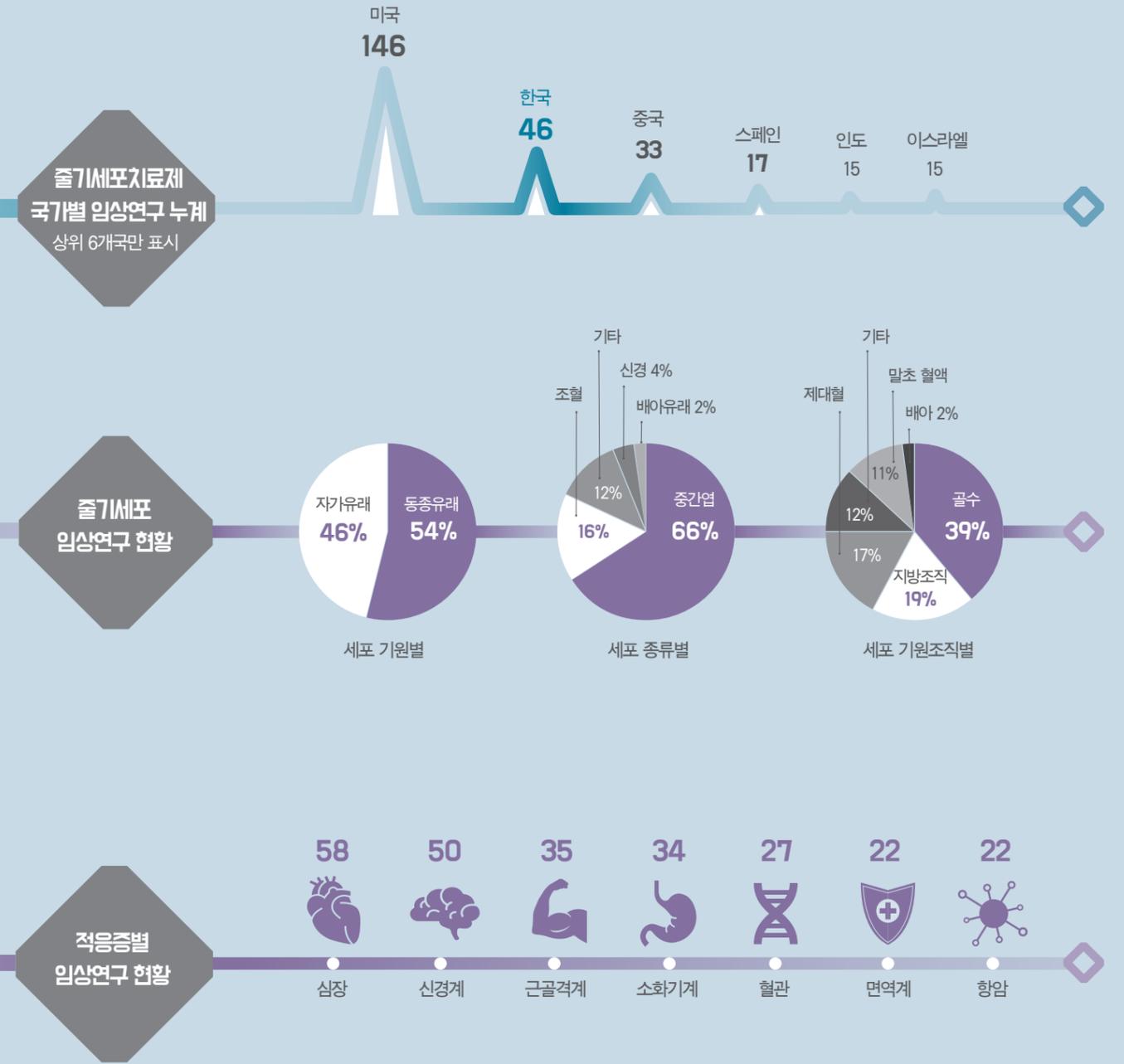
"구리 지역의 주민으로, 올해 4살이 된 우리 딸, 그리고 언니와 언니 아이들과 함께 코스모스 행사에 참여했어요. 아이들이 함께 의사 체험, 약사 체험을 해보는데 너무 즐거워 하네요. 병원과 같은 딱딱한 공간이 아니다 보니 각종 검사도 아이들이 먼저 해보고 싶어 하고요. 다채로운 부스와 알찬 체험 기회에 많이 즐기고 또 배우고 갑니다."

SPECIAL THEME

미래의학을 선도하는
한양대학교의료원

줄기세포 맞춤형 치료 시대가 도래하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중 다양한 유형의 다른 세포 형태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줄기세포는 혈액이나 지방, 근육 및 간과 콩팥 등의 각종 장기를 구성하는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다. 줄기세포의 이러한 특징은 지금까지 완치가 요원하게만 보였던 각종 난치성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 개별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밀의학으로 진화하는 오늘날 의료의 현장 속에서 더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한양대학교의료원은 이미 다양한 진료과에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를 하며 그 분야의 의학을 선도해나가고 있다. 줄기세포의 구체적 기능과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제 질환에 적용되는 치료의 모습을 확인해본다.



기간 : 1998~2015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및 규제 동향 2015' (2016.3.31)

줄기세포로 극복하는 난치병

뇌 신경계 질환의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다

줄기세포의 정의와 활용

최근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과 그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 영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줄기세포란 자기 복제가 가능하며, 신호나 자극에 따라 다른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全分化能)을 갖는 세포를 의미한다. 이것은 크게 배아줄기세포, 전분화능 유도줄기세포 및 성체줄기세포로 구분된다. 줄기세포는 예로부터 치료방법이 전혀 없었던 난치성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으며 그 치료법 개발에 대한 노력이 계속 되어왔다.

다른 장기와 달리 신경계라는 장기, 그중에서도 뇌는 인지능력과 고유의 자기정체성을 갖는 장기이다. 그러므로 질병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거나 신경세포를 재생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무수한 신경망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렵고 설사 재생된다고 해도 본인의 정체성이 소실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파괴된 신경세포 혹은 조직을 배아줄기세포 혹은 유전자조각이 가해진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재생이나 재건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보다 성체줄기세포의 고유특성으로 알려진 신경성장인자 분비 및 염증-면역조절 기능, 내재성 줄기세포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현재 임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향이다.



STEM CELL

최근의 의학적 발달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한 개발과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는 현재까지 치료 방법이 없었던 난치성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그 적용 기능성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실제 임상에서 사용하는 줄기세포 중 가장 많은 부분은 성체줄기세포이며, 이 세포는 골수 및 제대혈 이외에도 지방조직, 양수, 양막 및 제대 등과 같이 다양한 조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특히 환자본인에서 채취한 성체줄기세포는 윤리적 문제와 이식에 따른 면역 거부반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줄기세포 분야에 비해 임상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줄기세포치료술은 아직까지는 질 환별 표준화 지침이 없고 이를 이용한 대규모 임상자료가 거의 없는 초보단계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근거 없이 과대포장된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분별하게 줄기세포치료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실제로도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 일부 줄기세포치료 연구에 대한 자료가 과장되고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줄기세포 분야는 향후 국가 바이오산업의 미래전략사업 중 중요한 분야가 될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으로도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대한 규정 및 규제가 더욱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국가 규제에 걸맞은 기초 및 임상연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글. 김승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난치성 신경계질환 세포치료센터장

각종 난치성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열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실시해 온 한양대학교병원은 오랜기간 동안 준비작업을 통해 세포치료센터가 2010년 보건복지부의 병원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50억 원의 지원을 받아 신경계 난치성질환으로 알려진 루게릭병에 대한 줄기세포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난치성 파킨슨병, 허혈성 뇌졸중, 뇌성마비와 루푸스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머지않아 동종줄기세포를 이용한 루게릭병 세포치료제 개발과 함께 루푸스 세포치료제(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팀), 뇌성마비에 대한 세포치료법(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팀)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도 각 연구팀들이 보건복지부의 연구개발비를 수주하여 임상시험(1상 및 2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세포치료 연구센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자가골수유래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개발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난치성질환에 동종줄기세포치료제와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를 이용하는 임상시험을 활발히 하고 있어 머지않아 난치성질환을 극복하는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연구팀에서 수행해오고 있는 파킨슨병의 새로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연구(생화학교실 이상훈 교수팀)의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업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머지않아 기초의학팀과 임상팀의 협력을 통해 파킨슨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한다.

맞춤형 줄기세포치료의 시대를 준비하다

최근 유전체 연구방법의 발전은 국내환자와 외국환자와의 유전적인 차이를 밝혀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으로 도약한 한양대학교 류마티스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루게릭병 클리닉에서는 루푸스 환자와 루게릭병 환자의 유전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환자의 유전변이 및 양상이 서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를 국제적인 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도 맞춤형 정밀의학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미래의학은 점차 통계에 의존하는 의학에서 개인형 맞춤형 정밀의학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세포치료센터는 환자 피부조직을 이용하여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방법과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를 분화시키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유전학적으로 취약한 환자 및 특이한 임상경과를 갖는 환자에게 신경세포재생과 치료를 위한 방법을 개인 맞춤형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개발, 궁극적으로 환자별 맞춤형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희귀질환중개연구센터, 한국인 맞춤형 치매치료제 개발을 위한 치매극복사업, 보건복지부 줄기세포사업의 과제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적합하고 개인별로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학적 지표를 발굴하여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개념과 연구방향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병원 세포치료센터는 미래지향적인 맞춤형 치료시대를 여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줄기세포를 이용한 맞춤형-정밀치료법 개발'로 난치성질환을 극복하는 미래의학의 선도적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다. ☺

줄기세포로 극복하는 난치병

루푸스 환자의 이상 면역 문제를 해소하다

치료가 어려운 면역질환, 루푸스

루푸스는 라틴어로 늑대라는 의미다. 루푸스 환자의 피부가 마치 늑대가 물어뜯은 모양으로 보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마치 늑대에게 물리는 것처럼 심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병으로 피부의 문제뿐 아니라 콩팥, 폐, 심장, 뇌 등 중요한 장기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내 몸을 나쁜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공격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우리 몸의 어디든 가리지 않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과 문제를 일으킨다. 다행히 중요한 장기에 문제 없이 경미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 반면, 중요한 장기에 중대한 이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조기에 진단 받고 적절한 치료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장기 중에는 콩팥의 침범이 40% 이상에서 나타나며 심한 경우 신장 기능이 나빠질 수 있다.

오늘날 루푸스라는 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치료제와 치료 전략이 개선되었고, 생존율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주요 장기에 침범이 있는 경우 예후가 불량한 경우가 많다. 특히 아직 효과적인 약제가 부족하여 치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근 새로운 약제들의 개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효과를 보이는 약제들도 아직은 콩팥 침범과 같은 주요 장기 침범에는 충



IMMUNOTHERAPY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여러 난치성질환을 대상으로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가운데, 루푸스와 같이 효과적인 약제가 부족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에 특히 그 기대가 크다. 줄기세포를 활용한 루푸스 치료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이 아닌 줄기세포의 면역조절 기능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분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나쁜 경과를 보일 수 있다.

루푸스의 치료에는 현재까지 주로 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가 이용되고 있으나, 이는 이상 면역뿐 아니라 정상 면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어 이상 면역을 억제하기에 충분한 용량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의 위험도 항상 존재한다. 이때 루푸스에서 가장 좋은 치료는 근본적으로 내 면역세포가 내 몸을 나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으나, 이는 아직 가까운 시일 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면역을 보이는 세포들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염증을 일으키는

과정을 차단하는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해지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작용하는 약제들이 이미 류마티스관절염이나 강직성척추염과 같은 다른 류마티스질환에 효과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반면, 아쉽게도 루푸스의 치료에는 한가지 약제만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그마저도 역시 콩팥 침범과 같은 주요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가 부족한 상황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루푸스의 치료

최근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루푸스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관심

을 받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조혈모세포를 이용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치료는 자신의 혈액에서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채취한 뒤, 강력한 면역억제제로 자신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를 제거, 채취해두었던 세포를 이식하여 면역체계를 새로운 세포로 다시 구성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이 치료법은 과거 루푸스 치료에 사용되었고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에서도 여러 명의 환자가 이 치료로 효과를 보았다. 하지만, 새로운 세포를 이식 받기 위해 기존의 조혈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다른 합병증의 우려가 있어 누구에게나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방법이 매우 매력적인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성상 면역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우리 몸속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지 않으므로, 이식 전 내 몸의 면역세포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따른 부작용의 우려가 없고 면역조절 기능도 가지고 있어 루푸스의 원인이 되는 이상 면역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일반적으로 줄기세포는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루푸스의 치료에 있어서는 재생보다는 중간엽줄기세포의 중요한 특징인 면역조절 기능을 활용하여 재생보다는 면역을 정상화시켜 염증과 손상을 막는다는 것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이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중국에서는 이미 많은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주요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에도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것을 국제적 학술지에 보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루푸스 환자를 대상으로 중간엽줄기세포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중간엽줄기세포의



글. 최찬범 교수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면역조절 기능을 이용한 루푸스 치료 가능성을 실제 루푸스 환자에게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의 현재와 전망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루푸스 치료가 많은 기대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면역조절 기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안전성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중간엽줄기세포를 투여받아도 무리가 없고, 현재까지의 보고된 결과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아직 크지 않다.

아직도 주요 장기를 침범한 루푸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가 부족해 치료 경과가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정상 면역에 영향 없이 이상 면역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여러 치료 방법이 개발 중이고 일부 효과를 보이는 것도 있었지만, 아직도 주요 장기 침범이 있는 경우에 충분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루푸스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나 치료 방법 중에는 지금까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가장 높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수년 전부터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루푸스 치료를 연구해온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은 이제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을 앞두고 있다. 루푸스 연구와 치료를 선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간엽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역시 선도 기관으로서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나아가 모든 루푸스 환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함께 이어갈 수 있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

줄기세포로 극복하는 난치병

뇌성마비 치료 제대혈로 가능성을 열다

제대혈이식 vs 제대혈 세포치료

제대혈을 이용한 조혈모세포이식은 1988년부터 세계적으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에 첫 성공을 이루었다. 이후 현재까지 제대혈이식은 일반적으로 이식에 필요한 조직적합항원 일치자가 없는 조혈모세포이식 수혜자들에게는 중요한 이식자원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5만 명 정도의 환자가 제대혈이식을 이용한 난치성질환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는 세포치료와 이식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 두 가지가 혼돈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의 차이에 대해 우선 알아보려고 한다. 즉,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고 하면 제대혈

을 정맥으로 주입하고, 정맥주입된 제대혈 속의 줄기세포(주로 혈액줄기세포)가 환자의 몸(골수) 속에 이식이 된 상태로 새로운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그러나, 세포재생을 목적으로 정맥 및 병변 부위에 주입하는 경우는 제대혈 속의 줄기세포가 직접 이식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주입된 제대혈 속의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한 세포재생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므로, 제대혈이식이 아니라 제대혈 세포치료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CORD BLOOD

제대혈은 신생아 출생 시 태반과 탯줄에서 얻을 수 있는 신생아의 혈액이다. 제대혈이 환자치료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제대혈 속에 혈액을 만들어내는 조혈모세포가 풍부하다는 연구결과로부터이다. 국내 및 국외의 제대혈을 활용한 치료 현황과 함께 그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제대혈은행과 제대혈의 활용

제대혈이식이나 제대혈 세포치료를 이용하는 제대혈은 기왕 보관되어 있던 제대혈을 활용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곳을 제대혈은행이라고 한다. 제대혈은행에는 기증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한 제대혈을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여 보관하는 기증제대혈은행과 보관경비를 지불하고 자신이나 가족을 위하여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은행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증제대혈은 75만 단위 정도 보관되어 있으며, 가족제대혈은 54개 국가의 200개 이상의 가족제대혈은행에 4백만 단위 이상이 보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도 약 4만 5천 단위의 기증제대혈과 45만 단위의 가족제대혈이 보관되어 있다.

현재 기증제대혈은 제대혈이식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는 약 4.3%에 그친다. 가족제대혈의 경우에는 제대혈이식에서의 활용도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주로 제대혈 세포치료를 활용하고 있고, 그 활용도는 0.025%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에도 일부에서는 타인의 제대혈을 이용한 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대혈 속의 조절T세포를 활용한 각종 염증성질환을 치료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기증(타인)제대혈의 세포치료에의 활용에 관해서도 향후 임상시험들의 결과에 따라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다.



글. 이영호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제대혈 세포치료 임상시험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뿐만 아니라 여러 조직들로 분화할 수 있는 중간엽줄기세포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재생의학 분야 역시 제대혈을 활용하기 위한 임상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간엽줄기세포는 혈액줄기세포와 다르게 골세포, 연골세포와 같은 중요한 세포계열로 분화할 수 있으므로, 제대혈에서 배양한 중간엽줄기세포를 활용한 세포치료는 연골치료제, 신경세포치료제 등 각종 퇴행성질환의 치료약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제대혈을 직접 주사하여 조직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한 자폐, 소아당뇨 등의 질환에 대한 임상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뇌성마비 환자들에 대한 제대혈 세포치료는 자가제대혈을 이용하여 미국, 한국, 중국 등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제대혈 정맥주입은 안전하고 일부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으며, 특히 비중증 뇌성마비 환자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도 제대혈 세포치료로 약 25%의 환자에서 신경기능의 회복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제대혈 세포치료 이후 약 1~3개월이 경과하면서 호전되는 경향을 관찰하였다. 또한, 제대혈 세포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G-CSF(백혈구 성장인자)와 자가 말초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3년간의 임상시험에서도 세포치료 후 약 1~3개월이 지나면서 약 45%의 환자에서 신경기능 재생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자가제대혈과 G-CSF의 병합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제대혈의 신경재생효과는 제대혈 속의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 분화된다는 학설보다는 제대혈에 포함된 다양한 염증 관련 및 항염증 관련 사이토카인(Cytokine, 인체의 방어체계를 제어하고 자극하는 면역체계의 중심)의 분비에 의한 것이라는 학설이 더욱 지배적이다.

자가제대혈은 한번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에는 자가제대혈과의 병합치료 방법이나 자가제대혈의 증폭을 통한 반복치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임상시험이 필요할 것이며, 기증제대혈을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혈 정맥주입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재생기전에 관한 기초연구들을 통하여, 다른 난치성질환으로의 적용확대를 해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㉞

Check! 한양대학교병원 제대혈클리닉

제대혈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국내 최초로 개설됐다. 제대혈의 보관에서부터 이용 가능한 질병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고 있으며, 주로 시행하고 있는 상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대혈을 이용해서 어떤 질병의 치료가 가능한가?
- 제대혈을 보관할 필요가 있는가?
- 제대혈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가?
- 제대혈을 보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최근의 제대혈 치료 성적은 어떤가?
- 제대혈을 이용한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떤가?
- 제대혈 치료, 위험하지 않을까?





“한양대학교병원은 이번 2016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을 비롯해 각종 의료지표상 이미 최상위권 병원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 병원은 환자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환자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배려한 공공진료와 의료전달체계 등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 획득

한양대학교병원의 눈에 띄는 약진에 심평원을 비롯한 의료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광현 병원장은 “사랑을 실천하니, 고맙게도 사랑이 따라왔다”며 “한양대학교의료원 설립이념에 따라 사랑의 실천자 사명에 충실하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으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글 윤진아 사진 이승현



의료 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최고 병원’ 입증
한양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았다. ‘의료 질 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항목별로 측정하여 평가 및 등급화하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 질 평가에 따른 병원별 차등 수가제를 도입, 지원금 역시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올해는 1등급 내에서도 가·나로 등급이 세분됐으며 환자 경험을 토대로 한 적정성 평가가 처음으로 시행, 평가에 적용됐다. 전국 322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의

료 질 평가에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총 5개 영역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받았다.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의료 질 평가에서 ‘1-가’ 등급에 해당하는 98% 이상의 성적을 받은 병원은 소위 Big 5 병원과 한양대학교병원 등 전부 7곳에 불과하다. 이광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아 1등급 수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받게 돼 기쁘다”며 “희귀질환 및 고위험군 환자 치료에 두 팔을 걷어붙여 준 의료진과 간호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한 보험심사팀과 관

런 전산프로그램을 구축한 의료정보팀, QI실 등등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준 모든 교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우리 병원은 환자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환자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배려한 공공진료와 의료전달체계 등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이번 성취가 그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밝히고, "지금껏 그래 왔듯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진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강한 포부를 내보였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프로세스 확립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은 급성 및 중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비율을 높이고 의료 취약계층 공공진료 등에서 3차 의료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광현 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임상진료 및 연구역량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역량을 안, 심장 질환 등 흔하게 발생하면서도 중증도 높은 질환과, 희귀하면서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 모으는 것은 3차 진료기관의 사명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된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오픈과 함께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프로세스를 더욱 선진적으로 확립, 급성중증질환 환자 진료에 주력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겠다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의지는 나날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 한양대학교병원은 특성화 센터와 전문 클리닉을 바탕으로 중증 환자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선정되며 발달장애인 전문 치료를 위한 다학제 협진 윈스톱 진료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한양발달의학센터가 신설되었으며,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진료코디네이터가 발달지연아동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 선정으로 더불어 발달장애인 진료 전문의와 국제응용행동분석가 자격을 갖춘 행동치료사, 임상심리사, 언어재활사 등을 충원하고, 독립된 진료공간을 마련해 자해나 공격 등의 행동장애를 보이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행동 발달중진센터를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최고 수준 의료서비스로 건네는 따뜻한 '사랑 실천'

의료와 교육, 연구를 담당하는 시설로 새롭게 태어난 신흥플라자도 최근 증축을 마치고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양대학교병원 동관에 신축된 4층과 5층, 옥외에는 의과대학 연구센터, 류마티스병원 연구센터 등 다양한 의학 연구를 위한 전담 시설과 함께 옥상정원, 중환자 보호대기실이 들어섰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한양대학교병원의 청사진도 이미 실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새롭게 선정한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한양대학교병원은 최적의 응급의료시스템을 확충해나가고 있다. 내부공간을 리모델링하고 7층 높이의 건물을 새로 지어 일반응급환자실, 소아응급환자실, 소생실, 중환자실을 갖춘 또 하나의 작은 병원을 구축 중이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구조사, 응급코디네이터, 응급의료정보관리자 등이 배치돼 응급의학전문의 및 전담 간호사와 함께 24시간 중환자실에 머무르는 환자 모니터링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당직 수술팀이 24시간 가동되어 1시간 이내에 진료를 볼 수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메르스 이후 화두로 떠오르는 응급실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입구에서부터 선별하고, 음압 병상 등 격리 병상도 운영한다.

1972년 개원한 이래 한양대학교병원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박애정신을 기치로 의학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광현 병원장은 "잘 짜인 진료체계야말로 No.1 의료기관을 만든 비결"이라고 단언하며 "의사와 간호사는 물론 의료기사, 영양사, 의료정보관리사 등 수많은 전문직종이 병원에 근무한다. 한양대학교병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염관리, 환자응대 친절교육, 의료질 관리 등 전문적인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의학기술을 이끌어가는 연구 중심병원, 우수 의료인재 교육병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한양대학교병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질병과 더불어 인간을 고치고 나아가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한양대학교병원의 의지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약손'을 건넬지 기대되는 이유다.📍



2016년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은 한양대학교병원은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 응급의료센터로서 급성중증질환 환자 진료에 주력할 예정이다.



한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축 현장

Mini Interview

'의료 질 향상' 지속하며 발전하는 병원 될 것



이광현
한양대학교병원장

"우리 병원은 최근 몇 년간 병원 증축과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도약의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병원에 커다란 성장동력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44년 전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명에 의해 우리 병원이 설립되고 대한민국 의료계의 중심으로 성장한 만큼, 지금까지 받아 온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사회로 돌릴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전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한양대학교병원의 사명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3차 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하고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영화 속 질병, 공감의 매개체가 되다

영화 <올레>의 간암

질병은 때론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 속에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지난 여름 개봉한 영화 <올레>는 주인공에게 '간암'이라는 설정을 부여하며 청·장년 남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국내에서 만성 간질환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3~4배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음주와 회식이 많은 청·장년의 고충을 캐릭터에 투영한 것이다. 글. 백미희



영화 <올레>는 세 명의 '청춘 아재'들이 제주도에서 벌이는 예측불가 해프닝을 그리고 있다. 세 주인공은 대학 선배 부친의 부고 소식에 제주도에 모이게 된다. 39살 동갑내기 주인공들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뼈 빠지게 몸 바친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권고 받은 대기업 과장과 13년째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시생, 결혼 멀쩡하지만 아파서 방송을 그만두게 된 케이블 뉴스 아나운서까지. 이렇듯 세 명의 캐릭터들이 가진 고충과 사연은 저 멀리 동떨어진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라 더욱 공감되고 설득력을 가진다.

특히 배우 오만석이 연기한 '은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지녔다. 하지만 성실히 삶을 살아온 대가로 간암에 걸리게 되었고 회사를 그만두고 치료를 위한 이민을 준비하게 된다. 여기서 '간암'은 사회에서 한창 활약하고 있는 청·장년층의 공감 포인트를 높이는 요소로서 배치되어 있다.

극 중에서 은동이 아들과 통화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심한 병에 걸렸지만 통화하던 아내가 아들을 바꿔주자 은동은 아무렇지 않게 다정한 모습으로 통화를 이어나간다. 이외에

도 친구들이 서로 '자신이 불쌍하다'며 싸우는 순간에는 "난 간암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은동의 모습은 힘겨운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사회인,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애환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과로에 치이고 술에 취하는 게 일상인 한국인의 간은 오늘도 피곤하다. OECD 국가 중 간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할 정도로 '간'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생명줄을 조여오고 있다. 특히,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창 사회활동이 활발한 40~50대 중년 남성들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꼽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그래서 간암은 중년 남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미 70% 이상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음주와 과로에 시달리는 사회인들이라면 영화를 보고 한 번쯤 "혹시 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느 질병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음주를 삼가고 흡연을 하지 않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균형있는 음식물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간염이나 간 경변과 같은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조기에 진단할 수 있도록 소화기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침묵의 장기 '간' 중장년층의 건강을 위협하다

정재윤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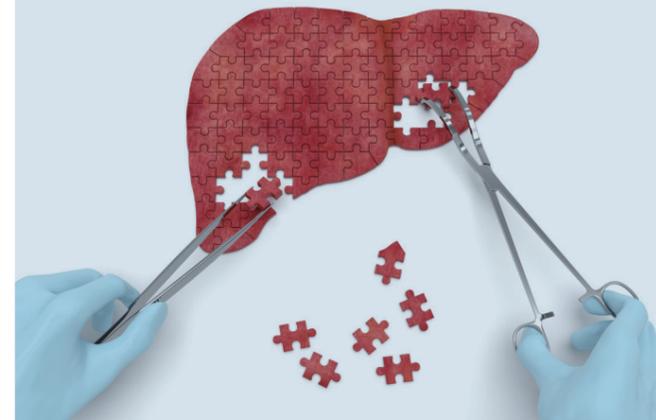


간암의 유병율과 예후

흔히 '간암'이라고 불리는 원발 간암(Primary liver cancer, 이하 간암)은 2013년 한 해에만 국내에 약 1만 6천여 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하며, 갑상선암-위암-대장암-폐암-유방암에 이어 암 등록 순위 6위인 암이다. 「2013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2009~2013년)」에서 우리나라 10대 암 중 간암은 5년 생존율이 약 30%로 췌장암, 폐암 다음으로 불량한 예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에서 간암이 폐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40~50대에서는 간암이 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였다.

간암의 원인과 예방

간세포암(Hepatocellular carcinoma)은 간암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간세포암은 대부분 뚜렷한 원인 인자를 가지고 있어 고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다. 자신이 원인 인자를 가지고 있다면 간세포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간세포암의 원인은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염 및 간경변증이 전체 환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C형 간염바이러스, 알코올 등을 포함하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간암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간세포암에 대한 원인 치료를 받는 것이다. 최근에는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한 치료약제가 발달해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경우에 간세포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알코올성 간질환의 경우, 적극적인 금주를 통해 간세포암을 예방할 수 있다. 이들 고위험환자군(B형 간염, C형 간염, 간경변증)에 대한 간세포암 검사(간 초음파검사 및 혈액검사)는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한다.

기존에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서 간 초음파검사를 포함한 간암 검진이 만 40세 이상의 간세포암 고위험환자군을 대상으로 연 1회 시행되고 있었으며, 2016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되었다.

간암의 진단과 치료

선별검사에서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 복부 CT 검사 또는 간 MRI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 시 혈관 조영술, 조영증강 간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에서도 진단이 확실치 않을 때는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간세포암의 치료법은 치료 효과 면에서 근치적 치료와 비근치적 치료로 나눌 수 있다. 근치적 치료로는 수술적 치료인 간이식과 간절제술이 있으며 국소 소작술인 고주파열치료,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이 있다. 비근치적 치료로는 경동맥 화학색전술, 방사선치료, 전신 항암화학요법, 표적 약물치료 등이 있다. 간세포암 치료법 선택에서 다른 암종 치료와 차이점은 간암은 암종 이외에 간경변증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간세포암 치료는 단순히 종양의 병기만을 고려하지 않고 간세포암의 진행 정도, 간기능의 정도, 전신활동도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므로 반드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솔직함’으로 스트라이크

한양대학교병원 협력병원 안진균 피부과

안진균 피부과는 2002년 4월, 서울 금호동의 금남시장 인근에서 문을 열었다.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쳐 대학교까지 가까운 한양대학교를 나온 성동구 토박이 안진균 원장의 선택이었다. 낯설음보다 익숙함이 편한 주택가 밀집 지역 개원의에는 환자가 늘기는 어렵다더니, 단골은 조금씩 꾸준히 늘어났다. 안 원장 특유의 간결 명료한 ‘직설 화법’이 비결이었다. 글. 박여민 사진. 김지원



환자를 생각하는 ‘돌직구’ 의사

안진균 원장은 진료에서 딱 필요한 말만 해주기로 유명하다. 때로는 누구나 먹고 싶어하는 사탕보다 한 번의 쓴 약이 더 효과적인 법. 그는 환자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로나 가능성의 말 대신 정확한 진단과 설명으로 본인의 진심을 전달한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피부과에는 사실 완치가 가능한 질병은 많지 않아요. 그걸 먼저 아셔야 하거든요. 최근 많아지는 알레르기나 노인성 질환은 특히 그렇죠. 알레르기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이 완화될 순 있지만 몸에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 반응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죠. 골절과 비교하자면, 팔이 부러졌을 때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지 다시는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할수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다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지키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려드려야죠.”

증상을 없앨 수 없으니,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법을 지키자는 것. 이것이 안진균 원장식의 돌직구다. 그리고 이런 그의 스타일은 피부미용을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요즘 미용을 위해 피부과를 찾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미용을 위한 시술을 받을 때는 그분들 나름의 기대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그 효과가 늘 만족스러운 것만은 아니거든요. 요새는 광고 등에 과장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나 미용은 자기 자신의 만족도가 커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결과를 미리 알려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솔직하게 보았을 때 그 효과가 크지 않아 보인다면 받지 않아도 괜찮을거라 말씀 드려야죠.”

솔직한 견해와 간결한 설명으로 처음 안 원장의 진료에 물음표를 품었던 환자들도 이제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병원이라며 지인들에게 안진균 피부과를 소개한다. 한결같은 그의 직구가 환자들의 마음에 제대로 꽂혔다.

모교에서 이제는 ‘베스트 파트너’로

피부과 질환의 특징 중 한 가지로 시각을 다루는 중증 환자가 적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나 큰 수술이 필요한 질병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대신 오랫동안, 긴 시간을 들어서 천천히 변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환자들이 있다. 하지만 사실상 동네 병·의원의 상황은 이런 환자들을 모두 돌보며 이끌어 나갈 수 없기에, 안진균 원장은 모교인 한양대학교병원으로 이들의 진료의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우선은 피부암이라든가, 조직검사가 필요한 질병의 경우가 있어요.



안진균 피부과

- 주소 :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02
- 문의 : 02-2292-7005

또 꾸준히 약을 먹고 검사를 해나가면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는 베체트병이나 홍반성 루푸스 같은 환자들도 대학병원으로 가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특히 한양대학교병원은 모교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한 의료진과 시설들을 갖추고 있으니 객관적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어요.”

학회사 동문회 등의 다양한 일정으로 지금도 꾸준히 한양대학교병원을 방문하는 안진균 원장은 성동구 의사회에서 오랫동안 이사로 활동하며 한양대학교병원을 비롯한 인근의 병원들과도 활발한 교류를 나누고 있다. 자연스레 모교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이제는 협력 병원으로 새로운 관계를 이어나가다 보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한양대학교병원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고.

“특히 진료협력센터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게 굉장히 발전한 것이 느껴집니다. 의뢰를 보내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수월하게 연결되고 있죠.”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발전을 지켜본 안진균 원장에게 한양대학교병원은 애정 어린 자신의 모교이자 이제는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협력병원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늘 곁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지역 병·의원들과 환자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길 바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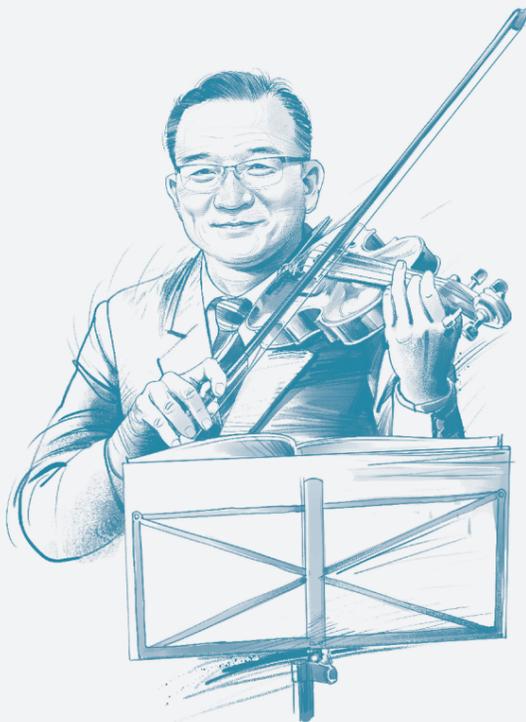
예술지상주의자가 그려낸 구원과 해방의 드라마

리하르트 바그너 오페라 <파르지팔>

Richard Wagner Opera <Parsifal>

이 작품은 바그너의 마지막 오페라이지만, 구상은 1845년경 「로엔그린」의 대본을 쓰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전설을 연구하면서 성배에 관한 전설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여 대본을 구상하게 되었는데, 최종 대본은 1877년 완성되었으니 약 25년이 걸린 작품이다. 여러 해 동안 그의 사상과 신념에 따라 대본이 조금씩 바뀌면서 작곡이 지연되던 중 후원자인 루트비히 2세의 독촉을 받아 1877년부터 작곡을 시작한다. 그리고 1882년 1월 우여곡절 끝에 완성하여 7월 초연을 하게 된다. 그는 <파르지팔>을 무대신성극(Bühnenweihfestspiel)이라 불렀는데, 그 내용은 중세 유럽의 성배기사 전설을 소재로 하고 기독교적 메시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 오페라의 배경은 영국 켈트족의 전설, 독일 중세 전설 등 중세 신화에 근거하고 있지만, 자신의 다른 작품들의 경우처럼 독자적인 내용이 많다. 그 중 독일어 번역자인 에센바흐의 「페르치팔(Fercival)」을 근거로 하였기에 게르만식의 이름인 '파르지팔(Parsifal)'로 인용 번역되었다. 이전까지의 오페라에서 오케스트라는 성악의 반주 역할이 가장 컸으나 이들 오페라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성악의 비중을 균등하게, 또는 오케스트라 쪽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성악도 일종의 오케스트라의 한 악기처럼 전체를 일관되게 표현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 오페라의 제3막에 나오는 '성 금요일의 음악'은 성악을 제외하고 오케스트라만으로 연주해도 충분히 그 의미와 이미지가 전달된다. 실제로 연주회에서는 이 부분을 관현악만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많다.

오래 전 신성한 기사인 티투렐은 천사로부터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가 포도주를 마신 성배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의 몸에 찢렸던 성창을 받는다. 티투렐은 스페인 북부 몬살바트 성에 이 성배와 성창을 안치하고 성 내에 신성한 제단을 만들고 경배하며, 보물을 수호하는 기사단을 조직한다. 어느 날 사라센 교도인 클링조르가 기사단에 입단하려 하자 티투렐은 그는 이교도일 뿐만 아니라 사악하다며 거절한다. 클링조르는 이에 앙심을 품고 근처에 아름다운 화원을 꾸미고 미녀들을 모아서 성배 수호 기사단을 유혹하여 타락시킨다. 티투렐에게 성배 수호 왕의 자리를 물려 받은 아들 암포르타스는 젊은 혈기로 클링조르를 일거에 멸망시키려 한다. 기사들을 이끌고 마법의 성으로 쳐들어가지만 클링조르의 계략에 빠져 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창을 빼앗긴 채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온다. 성배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신의 가호를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포르타스의 상처는 낫지 않는다. 어느 날 성배가 빛을 발하고, "자비심으로 깨우치리라. 세상 모르는 순수한 바보를 기다리라. 그가 약속된 자이니라" 라는 음성이 들린다.



제1막 제1장 스페인 북부 성배 수호 기사들이 있는 몬살바트성 근처 숲 속에서 구르네만츠가 잠에서 깨어난다. 그는 사동들을 깨워 아침 기도를 드리고 왕이 아침 목욕을 하러 올 것이라며 준비를 명령한다. 이때 쿤드리가 멀리 아라비아로부터 왕의 상처에 필요한 약을 구해 와서 그에게 준다. 이후 왕이 나타나서, 지난 밤 고통 속에 지친 가운데 떠오른 신의 계시를 이야기한다. 왕이 목욕을 마치고 떠나자 사동들과 구르네만츠는 왕의 상황을 이야기한다. 구르네만츠가 구원의 계시를 얻으려 기도할 때, 성배로부터 '순수한 바보가 약속된 자'라는 말이 들려온다. 그때 호수 쪽에서 백조를 쓴 파르지팔이 기사들에 의해 끌려온다. 파르지팔의 신원을 쿤드리가 구르네만츠에게 전해준다. 쿤드리는 파르지팔이 싸움을 배우지 못한 바보라고 비웃고 파르지팔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한다. 구르네만츠는 그들의 싸움을 말리고 파르지팔을 성인으로 데려간다.

제2장 성전 안 예식을 지내는 곳 파르지팔이 그가 찾는 순수한 바보라면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여겼지만 그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자 그를 내쫓는다.

제2막 제1장 클링조르의 마법의 성 마법에 의해 깊은 잠에 빠져있는 쿤드리를 클링조르가 깨운다. 쿤드리에게 성배의 기사를 유혹하라고 재촉하면서 "나의 마법은 순진한 바보(아)만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제2장 클링조르의 정원 정원까지 들어온 파르지팔은 자신을 유혹하려는 처녀들을 뒤로하고 떠나려하는데 쿤드리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쿤드리의 유혹에 빠져들려는 순간 갑자기 암포르타스가 상처의 고통을 느낀다. 파르지팔은 결국 쿤드리를 멀리하고 클링조르를 만난다. 클링조르가 그를 죽이려고 성창을 던지지만 파르지팔은 그 창을 잡는다. 이후 클링조르의 성은 파르지팔에 의해서 무너진다.

제3막 제1장 성배의 영지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구르네만츠는 숲 속에서 신음하는 쿤드리를 일으켜 세우고 그녀가 새로운 태도로 변한 것을 발견한다. 성배가 부드러운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천장에서 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가운데 쿤드리는 생명을 잃고 쓰러진다. 파르지팔이 성스러운 임무를 맡고 있었지만 어리석음으로 인해 늦게 도착했음을 탄식한다. 구르네만츠는 그에게 세례를 주며 땅에서 벗어나라고 축복하고 파르지팔은 쿤드리에 세례를 베풀어 그녀의 저주를 풀어준다. 화려한 정원에서의 유혹에 대해 묻자 구르네만츠는 그것은 성 금요일의 마술이라고 대답한다.

제2장 성안의 성전 파르지팔은 암포르타스의 상처를 성창으로 치유해 준다. 성창을 들은 파르지팔이 나와서 창끝으로 암포르타스의 상처에 대며 말한다. "당신을 상처 입힌 이 창으로만이 당신을 치료할 수 있다. 용서와 치유와 속죄를 받고 축복을 받으라. 이제부터 그대가 하던 일을 내가 하리라"며 이야기한다. 암포르타스가 감격하고, 모두들 기적에 놀란다. 파르지팔이 성배의 앞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자 높은 곳에서 조그맣고 아름다운 합창이 들려온다. "오! 경이로운 구원의 기적이여! 구세주께서 부활하셨도대!" 천장에서 흰 비둘기가 날아와서 파르지팔의 머리 위에 맴돌고 쿤드리는 생명을 잃고 쓰러진다. 파르지팔이 성창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동료기사들을 축복하며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



글. 오재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오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제)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들을만한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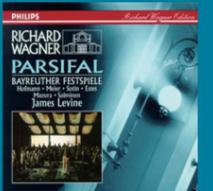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Philips, 1962)

지휘 : 한스 크나퍼츠부슈
조지 런던(암포르타스),
한스 호터(구르네만츠),
제스 토마스(파르지팔)



베를린 도이치오페라
(DG, 1979)

지휘 :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호세 반 담(암포르타스),
쿠르트 뮐(구르네만츠),
페터 호프만(파르지팔)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Philips, 1988)

지휘 : 제임스 레바인
한스 조탄(암포르타스),
마티 살미넨(구르네만츠),
페터 호프만(파르지팔)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지 못한 이들의 이야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중심으로



21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나로서는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다만 추억으로 소비되는 그 분의 습관, 어투, 성품, 그리고 남겨진 유품들을 근거로 할 때 대략의 추측은 가능해진다. 거울을 봐야만 알 수 있는 내 모습과 녹음된 음성으로만 확인 가능한 내 목소리에서, 여기에 더하여 알게 모르게 내 판박이인 아들의 무의식적인 습관들을 보면서 숨길 수 없는 DNA의 무서움을 느끼는 한편, 내가 모르는 아버지의 인생 전반부 궤적을 채색해보게 된다. 과연 아버지는 스스로가 납득할 만한 인생을 사셨을까? 이에 대한 답변은 많은 부분을 물려받은 내가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인생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내 뒤를 이어 아들이 해 줄 터이니 말이다.

죽은 사람이 있다. 보통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 부인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다. 가족 사이에는 모든 것이 다 까발려져 있을 것 같지만 숨겨진 이야기는 항상 있는 법이다. 놀라운 것은 가신 분에 대한 기억과 정념이 다 같지는 않는 것이다. 일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에는 아들과 아버지가, 그리고 계단이 등장한다. 계단 위 아래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걸으면서 말하고 중요한 순간에 서로를 응시하며 이해한다. 때로는 삶에 익숙한 오브제로서의 무덤이 등장하며 숨겨진 속내를 들어 내는 장치로서의 역할도 한다.

검은색 렉서스 GS를 타고 다니는 대기업의 료타는 성실한 가장이다. 그는 업무에 빈틈이 없으며 상냥한 아내, 착하고 사려 깊은 아들 케이타와 함께하는 가정은 겉으로 볼 때 모든 게 완벽하다. 케이타가 6살 되던 무렵, 산부인과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와서 태어날 때 애가 뒤바뀌었다고 말한다. 료타의 친아들은 류세이란 이름으로 다른 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다. 료타는 철물점을 운영하며 낡은 흰색 다마스 트럭을 모는 류세이의 아빠(유다이)의 행색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병원 전화를 받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에게 짧게 말한다. "역시 그랬군"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는 생물학적인 부성과 키운 정 사이에서 고민하며 신파로 진행되는 한국식 드라마와는 확연히 다르다. 병원에 소송을 준비하는 6개월 동안 아이들은 서로의 친 부모에게 돌아가 마지 뉘비우스의 띠처럼 꼬여버린, 물보다 진한 피의 의미를 곱씹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아노 대회에서 쉬운 스코어를 계속 실수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의 연주를 칭찬하는 아들 케이타에게 아빠 료타는 말한다. "너는 지는 게 분하지도 않니?" 살가운 부자의 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료타는 진정한 부성의 의미는 모른다. 다만 지금껏 같이 한 케이타와 진짜 아들 류세이를 함께 가지겠다는 생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유다이에게 얼마면 아이를 줄 수 있다고 묻지만 그에게 한 대 얻어 맞는다.

료타는 케이타가 카메라에 담아 놓은 자신의 사진들 -아이의 사진에서 본 사진은 아빠의 발만 크게 보이거나 자고 있는 모습을 흐린 초점으로 뺄뚱뺄뚱하게 담았다- 을 보고서야 깨닫게 된다. 아이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사랑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다이의 철물점 문턱을 넘으면서 류세이는 신나게 외친다. "타다임!(다녀왔습니다)". 자신에게 도망치는 케이타를 뒤쫓는 료타는 계단을 사이에 두고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한다. 사랑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이며 부모 자식 사이의 사랑에는 물보다, 피보다 더 진한 '함께 한 시간'이 있음을 잔잔히 일깨워 준다. 엔딩곡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아리아와 변주, 그리고 다시 아리아로 이어진다는 일본판 '집으로 가는 길'의 회귀본능과도 맞닿아 있다.

타인의 목숨을 구하다 대신 목숨을 잃은 앞길에 촉망 받던 의대생 장남이 있었다. 15년이 지난 준페이 기일에 가족들이 모이지만 차남 료타는 냉정한 의사출신 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에 들어갈 공간이 없음을 알고 상실감과 열패감을 느낀다. 아이를 데리고 재혼한 자신의 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식구들의 차별에 지치고, 친아버지와는 대화도 없이 서먹하며 남의 자식과는 아직도 친해지지 않은 실직한 가장 료타에게는 아직도 식구의 의미가 요원하다.

걸어도 걸어도(2008)에서 형 준페이의 목숨과 바꾼 요사이를 매년 기일마다 부르는 것에 대해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는 료타에게 어머니는 낮지만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1년에 한번 고통을 준다고 해서 벌받지는 않을 거야. 내년, 내후년에도 와서 고통 받게 할거야."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모른 척 살아왔던 어머니의 18번곡이 남편이 바람 피면서 애인에게 들려줬던 곡이란 걸 알게 된 자존심 강한 원장은 옆집 할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구급차를 부르라는 말 밖에는 하지 못하는 전직의사가 되어 버렸다. 어릴 적 야구만 미칠 듯이 좋아했던 료타는 지금은 야구라는 말을 입에 담지도 않고 운동이라면 담을 쌓았던 아버지는 축구팬이 되어 버렸음을 알고 서로 놀란다. 언제 같이 축구경기나 보러 가자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식구'란 밥을 같이 먹는 친구의 의미로서 피를 나눈 사람들의 집합이라는 '가족'의 의미를 포괄한다. 15년 전 집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로 조그만 시골마을 장례식에 향한 세 자매는 이복 여동생 스즈를 만난다. 열다섯의 나이답지 않게 조숙하고 사려 깊은 그녀에게 냉정한 새어머니와 헤어지고 자신들과 함께 지내 자고 제안한다. 자식들을 버리고 사랑을 찾아 간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재혼한 어머니를 경멸하며 증오하던 아버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장녀 사치는 이율배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남자와 사귀고 있다. 혼란스러워 하던 사치는 이웃의 식당 여주인의 죽음을 끝까지 마주한 채 호스피스의 역할을 하게 되고, 스즈의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되찾게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는 해체와 결별, 그리고 각성을 통해 법만 같이 먹던 불완전한 공간이 네 명의 딸이 살게 되는 완전체 가족으로 되는 '그렇게 가족이 된다' 버전으로 탈바꿈한다.

태풍이 지나가고(2016)에서 죽은 아버지의 자취는 찾기 어렵다. 가능성 있는 소설가로서의 등단을 꿈꿨지만 지금은 흥신소 직원이 되어 버린 아들 료타는 경륜과 복권 구입을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붕어뱀이다. 더구나 그는 이혼을 한 채 직업을 이용하여 전부인의 뒤를 캐고, 막상 아들 싱고에게는 돈이 없어 운동화 한 켤레 사주기도 벅차다. 영화는 태풍을 피해 어머니와 전부인, 아들과 하룻밤을 지내는 료타의 시선을 담아낸다.

흥신소 일로 만난 고등학생에게 료타는 말한다. "모두가 되고 싶었던 어른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이 말은 마치 현실이 과거와 단절되어 미래로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지워진 어느 한 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부재(不在)는 아니다. 가시적이지 않을 뿐 분명 어딘가에 존재하고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런 영향은 상호보완적이라고 감독은 말하는 듯하다. 살아간다는 것은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현실은 사소한 사건의 연결 속에서 아름답게 빛을 발하며 완성되니 죽음과 부재, 그리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인생은 지속되며 항상 미완성이다. ☺



글.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이 교수는 기자를 꿈꾸었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살려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쉽지만 깊이 있는 까닭은 흥행 영화부터 예술 영화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고, 틈틈이 영화 전문서적을 읽어온 내공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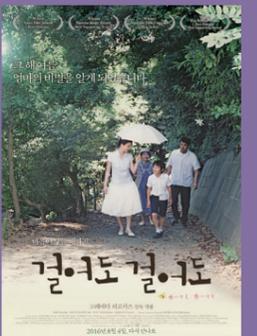
볼만한 Mov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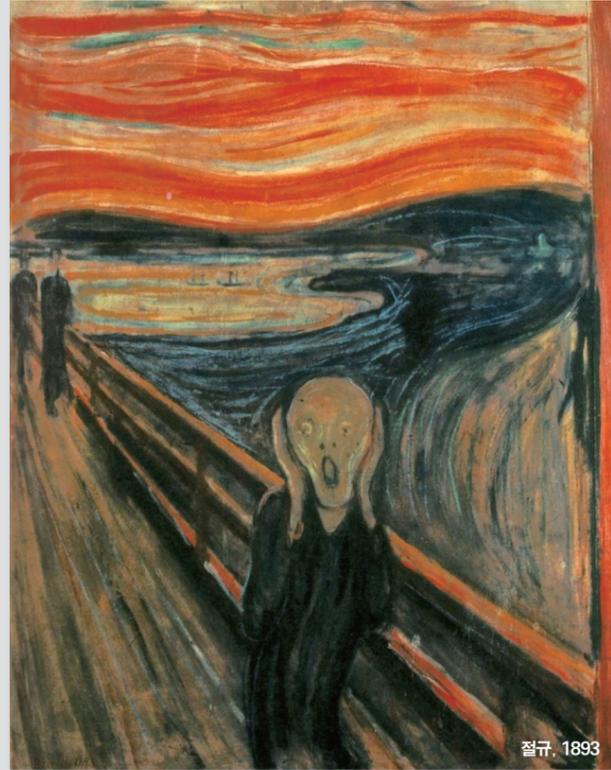
태풍이 지나가고(2016)
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 아베 히로시, 키키 키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 후쿠야마 마사히루, 니노미야 케이타



걸어도 걸어도(2008)
감독 : 고레에다 히로카즈
출연 : 키키 키린, 아베 히로시



절규, 1893

죽음으로 그늘진 삶 예술로 승화하다

에드바르트 뭉크 | 우울증 & 정신건강의학과



글. 최준호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에드바르트 뭉크(Edvard Munch, 1863~1944)는 노르웨이의 표현주의 화가로, 노르웨이 지폐에 그의 얼굴이 들어가 있을 만큼 자국 국민의 사랑을 받은 예술가이다. 대표작 '절규'는 많은 이들에게도 익숙한 작품으로, 그림의 구도 자체가 불안정하게 설정되어 강렬한 색상, 어두운 색조와 함께 보는 이에게도 불안을 전염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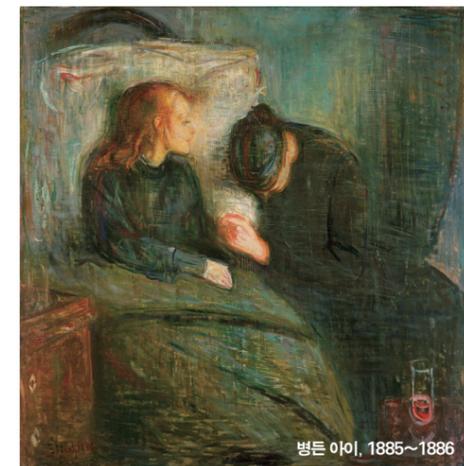
죽음의 공포가 함께한 어린시절

뭉크는 “나는 인류에게 가장 두려운 2가지를 물려 받았다. 하나는 허약함과 정신병이다”라고 했다. 스스로 병약함과 정신적인 결함을 인정할 만큼 약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뭉크의 작품은 사랑, 고통, 죽음, 불안 등을 테마로 내면의 자기 표현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늘 병과 죽음이 함께 했던 그의 가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예고 없이 항상 곁에서 불쑥 나타나는 심각한 삶의 국면인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항상 직면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정은 일견 19세기 노르웨이에선 상류층에 해당되는 선망하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그가 5살이던 1868년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하면서 불행은 시작되었다. 먼저 그의 아버지가 거칠고 편벽한 성격으로 변했다고 하며, 어머니 대신으로 가사일을 도맡아 하던 누나도 결핵으로 사망한다. 이러한 가정 배경은 그를 내향적인 성격으로 만들어 갔다. 후에 작업한 '병든 아이'라는 작품은 누이에 대한 그의 기억의 산물이었다고 한다.

내재된 우울함과 죽음에 파묻혀 지내던 어린 시절, 그는 공업고등학교를 접고 국립공예학교에 입학한다. 이곳에서 좋은 스승을 만나 그의 내면 세계가 회화로 승화되고, 예술가로서 일생을 걸어가게 된다. 1889년에는 국비 장학생으로 파리에 유학하게 되면서 인상파 화가와 만나 여러 걸작을 낳게 된다. 인상파, 신인상파에 머무르지 않고 상징주의 등을 흡수하면서 자기만의 독특한 예술 영역을 구축하던 중, 또 다시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으로 절실하고 절박한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에 매달리게 된다. 당시 일기장엔 “여자들이 뜨개질을 하고 남자들이 책을 읽고 있는 풍경을 그리는 실내화의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 내 그림은 숨을 쉬고, 느끼고, 괴

로워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내 작품을 보는 사람은 신성함과 높은 정신 세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며, 교회에서처럼 모자를 벗게 될 것이다”라고 써있다고 한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절규'라는 작품은 1893년 그의 전성기에 나온 작품이다. 이 작품에 대해 뭉크 자신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한다. “어느 날 해질녘에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한쪽으로는 시가지가 펼쳐져 있었고 밑으로는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는데 마침 해가 떨어지려는 때여서, 구름이 핏빛처럼 새빨강게 물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하나의 절규가 자연을 꿰뚫으며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 절규를 정말 들었다고 생각했다.” 이 작품은 상상의 산물도 아니고 냉정한 관찰과 분석의 결과도 아니다. 감각을 통해서 내적으로 발동된 잠재된 불안과 두려움이 환각적 경험을 이끌어냈고, 평생 시 정신병의 발병을 두려워하던 뭉크는 그렇게 보여진 순간을 시각화하여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었다. 불안하게 설정된 구도와 주변과 유리된 공포 속의 개인은 화폭의 중심에 위치하여 보는 이의 시선을 강제로 끌어들이는 인물에 향해 결집되어 수렴되는 주변의 색상이나 색채는 매우 강력한 인상을 준다.



병든 아이, 1885~1886



절규, 1895

삶의 어둠을 극대화 하는 우울함

그의 인생에서 우울은 삶의 색조를 이렇게 어둡게 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아마도 뭉크의 우울증은 여러 신경증적(Neurotic) 증상에서 대표적인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온 만성적인 경과가 만들어낸 재발성 우울증의 일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 받기도 쉽지 않았다. 정신약물학이 태동되고 정신질환에 약물이 사용되는 현대 정신의학은 1949년에야 시작되었다.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은 높은 자살률과 관련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매년 세계 1위의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더 그렇다.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는 우울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효과적인 성과를 볼 수 있는 질병이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경쟁적인 사회풍토는 병을 인지하고 치료하기 어렵게 한다. 민간질병약물의 혁신적인 발전은 우울증 치료에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이는 단순히 약물 복용만으로 낫는 병은 아니다. 자신의 우울한 느낌을 표현하며 일상의 어려움이 다름아닌 우울감에서 지속된다는 자각을 도와야 하고,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게끔 도와야 한다. 최소한 인지행동적인 접근이 있어야 하며 만성적, 재발성의 우울증에서 많이 보이는 성격구조에 대한 탐구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Psychoanalytic psychotherapy)의 접근이 요구된다.Ⓜ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일상에 돌아가는 길”

박찬혁 소화기내과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여기서 택시타면 집까지 20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김영수님은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늘 오가며 지나치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굵고 짧았던 치료와 입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젠 새로운 마음가짐과 노력으로 스스로도 더욱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고 한다. 정리. 박여민 사진. 이승현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신
박찬혁 교수님께

박찬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김영수입니다. 짧은
입원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와 이곳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의 인연은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는 정확히 되짚어보기도 너무 오래 된 18~19년 전 지금과 비슷한 병으로 인해 이곳을 처음 찾았지요. 당시에도 여러 교수님들께서 잘 돌봐주신 덕에 금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혈압과 심장 등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겼지만, 병원을 내원하고 처방 받은 약을 먹으며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하루 흘러가는 안정적인 나날에 제가 살짝 방심했던 것일까요. 이상한 기운이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을 찾았지요.

막막한 기분이었지만, 편안한 표정의 교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진행해주신 시술 덕에 제 몸도 금세 다시 안정적인 상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도 교수님께서 무척이나 상세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덕에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지켜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출혈이 멈춘 뒤 위궤양 치료를 진행하느라 잠시 금식의 시간도 있었지만 오히려 몸과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5일 정도의 짧은 입원 생활이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궤양의 치료를 위해 또 병원을 찾고 교수님을 뵙겠지만, 저도 평소의 생활 속에서 건강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라는 말씀만은 쉽게 약속 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드림

김영수님께



퇴원 수속은 다 잘 마치셨는지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병원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수님께선 위의 궤양으로 인한 출혈 때문에 응급실을 찾으셨죠.

대체로 위에서 출혈이 생기면 그 혈액이 항문을 통해 배출되는 흑변이나, 피를 토하는 토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행히 김영수님께선 그 증상을 바로 알아보고 병원을 찾아오셨죠. 확인해보니 위의 궤양이 위를 지나는 혈관을 자극해 터지면서 피가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출혈을 막는 일이 급했고, 내시경을 이용해 출혈을 막는 내시경지혈술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잘 마무리 되었고, 이후 입원 기간 동안 경과를 지켜보며 궤양의 치료를 병행했죠.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출혈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궤양 치료에 힘써야 합니다. 이젠 약을 복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꾸준히 좋아질 수 있어 퇴원을 말씀 드렸지만, 일반적으로 궤양은 완치까지 4~6주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을 내원하시고 약을 드시면서 일상에서도 좋아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금연입니다. 흡연은 궤양과 같은 여러 많은 병들의 원인이 되나,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바꿀 수 있는 몇 안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쉽진 않으시겠지만 충분히 교정 가능한 것이므로, 담배는 꼭 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마 현재 복용 중인 신경과와 심장내과 약은 앞으로도 꾸준히 드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 과의 약을 드시며 혹시라도 생길 수도 있는 다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늘 신경과 및 심장내과 교수님들과 협의를 하며 관심을 기울일 것이니, 저희를 믿고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박찬혁 드림

유방암, 미리 알고 예방하자!

정민성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외과



유방암의 복합적인 원인

유방암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의 복합 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와 유방암이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위험인자라고 한다. 유방암의 위험인자로는 여성, 나이(우리나라는 40~50대가 가장 많다), 유방암 가족력, 유방암 관련 유전자 이상,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출산 경험, 수유 요인, 음주, 비만(폐경 후 여성) 등이 있다. 위험인자는 유방암 발생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도를 말하는 것이며, 위험인자가 있다고 반드시 유방암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험인자가 있는 여성은 유방검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하며, 실제 유방암 환자들 중에는 이러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많으므로 여성이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Point.1

유방암의 위험인자를 미리 확인해보자.

유방암 정기검진의 중요성

유방암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것으로 유방에 딱딱한 멍울(혹)이 만져지는 것이 있다. 혹이 만져진다고 모두 암은 아니지만 일단 멍울이 만져지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유두 분비물이나, 유방암이 진행되면서 피부의 궤양, 함몰, 겨드랑이 멍울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드물게는 유방에 염증이 생긴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 30% 정도는 아무 증상 없이 건강검진을 통해 우연히 발견된다는 것이다.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상이 없더라도 꾸준한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방암 진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유방촬영술은 자가 검진이나 의사의 검진으로 찾을 수 없는 작은 크기의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며, 유방에 지방 조직이 적고 치밀한 섬유 조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 여성은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함께 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Point.2

증상이 없어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



- 본 원고는 한양대학교병원원 한국의료지원재단과 함께한 건강강좌의 일환으로 2016년 10월 25일 진행된 강좌의 내용입니다.
- 한양대학교의료원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1+12월 건강강좌 소식은 46페이지 한양캘린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ANYANG NEWS

2016년 9월 ~ 2016년 10월

한양대학교의료원

브라질 인코르병원과 원격의료 설명회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30일 동관 8층 회의실에서 브라질 상파울로 의과대학 및 인코르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광현 병원장, 최호순 의과대학장, 라벨로 인코르병원 매니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상파울로 의과대학 의료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 획득



본원은 보건복지부의 '2016년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쁨을 입증했다. 본원은 전국 322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의료 질 평가'에서 총 5개 영역 중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1등급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1-가' 등급을 받았고, ▲교육·수련 ▲연구개발 영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광현 병원장은 "본원은 환자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환자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며, 의료취약계층을 배려한 공공진료와 의료전달체계 등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진료에서 수납까지'



본원은 9월 27일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 '엠케어' 서비스를 시작하며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병원 시대를 열었다. 스마트폰 하나로 진료에서 수납까지 가능한 '엠케어'는 긴 대기시간, 번거로운 이용절차와 복잡한 실내구조 등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본 병원 이용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고 진료 예약부터 진료비 결제까지 가능한 국내 최초의 스마트 헬스케어 솔루션이다.

'대장암의 달' 맞아 건강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9월 22일 본관 3층 강당에서 '대장암의 달'을 맞이하여 대장암 환우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정신건강의학과 김석현 교수가 '대장암 환자 및 가족들을 위한 정서적 지지', 외과 이강홍 교수가 '대장암 예방에 좋은 영양소 나쁜 영양소'를 주제로 강의했다.

천사데이 기념 건강체험 행사 열려



본원 간호국은 '천사데이(1004-Day)'를 맞이하여 지난 10월 4일 본관 1층 로비에서 간호사와 함께 건강

한 삶을 만들어가자라는 슬로건으로 건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내원한 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혈당·혈압 측정 등 무료 건강검사와 상담을 실시했고, 페이스페인팅, 축하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새단장



본원 병원학교인 '누리봄교실'이 새롭게 리모델링 됐다. 이는 장기입원이나 통원치료를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운 병원학교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삼화페인트 플래그십 브랜드인 홈앤톤즈의 협찬을 받아 진행됐다. 특히 국내와 미국의 임상실험을 거쳐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와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의 인증을 받은 삼화페인트의 친환경 무독성 페인트 '더 클래식'을 제공받아 유해한 환경에 민감한 소아 환자들을 위한 친환경 리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구리시 코스모스축제서 의료봉사 활동



본원은 지난 9월 24일 구리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제16회 코스모스축제에 참여하여 건강과 행복을 주제로 '건강축제 한마당' 부스를 운영해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은 축제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 치과상담, 체지방 측정 등 여러 검사들과 약사체험, 걸음걸이교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그 외에도 체험부

스 중앙에서는 HY밴드 공연, 오케스트라 합주, 색소폰 연주, 합기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과 경품 추첨 이벤트를 열어 체험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남성갱년기 건강강좌 개최



본원 비뇨기과 이숙용 교수는 9월 2일, 구리시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높이기 일환으로 '남성갱년기' 건강강좌를 구리보건소 지하 1층에서 진행했다.

척추관협착증 건강강좌 개최



본원 마취통증의학과 심재항 교수는 10월 14일,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높이기 일환으로 '척추관협착증의 예방과 치료' 건강강좌를 구리보건소 지하 1층에서 진행했다.

통풍과 강직성 척추염 건강강좌 개최



본원 류마티스내과 방소영 교수와 안수민 교수가 지난 10월 11일 본원 12층 사랑의 실천홀에서 '골드링캠페인의 일환으로 '통풍과 강직성 척추염'을 주제로 건강

강좌를 개최했다. 골드링캠페인은 대한류마티스학회에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환자 및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공공캠페인이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2016 루이사 연례세미나' 루푸스 강의



본원 배상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지난 10월 29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열린 '2016년 루이사 연례세미나'에서 루푸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했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방소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루푸스 질환의 이해', 조수경 류마티스내과 교수가 '루푸스 신약', 배상철 병원장이 '루푸스 질문과 답변 시간'을 진행했으며, 권순우 한국웃음건강협회 강사의 '웃음은 내 삶의 열정' 강의와 함께 루푸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진단, 치료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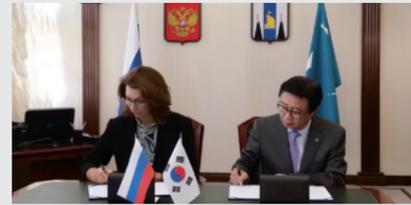
한양대학교국제병원

러시아 주요 바이어 팸투어 진행



본원은 지난 9월 7일 러시아의 주요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했다. 이날 팸투어에는 의료관광 시장에 관심이 많은 러시아 여행사와 미디어 등 9개사 관계자들의 방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본원의 다양한 센터, 병동, 첨단 의료장비 등을 돌아보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러시아 사할린주정부와 양해각서 체결



본원은 지난 9월 19일 러시아 사할린주정부 청사에서 사할린 주민들의 건강과 양 기관의 의료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호주 국제병원장, 사할린 스타스 켄바 나탈리아 알렉산드로브나 부총리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사, 동정



이영호 교수, 해외 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호 교수가 지난 8월 25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6차 혈액과 종양분야 돌파구학회 심포지엄'에 초청되어 '제대혈 및 말초혈 줄기세포를 이용한 뇌성마비 환자치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승현 교수, 미국 '저명인사 강연' 초청

한양대학교병원 신경과 김승현 교수가 지난 9월 12일 미국 휴스턴 메소디스트병원에서 열린 '제8차 Appel 교수 초청 저명인사 강연'에 초청되어 '중간엽 줄기세포의 면역-염증 조절기전을 통한 루게릭병 치료'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김중현 교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중현 교수의 논문이 종양학 분야의 권위있는 국제학술지인 '온코타겟'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한국인에서 새로 진단된 교모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표준요

법과 사이토카인 유도 살해세포에 의한 면역치료 병용요법에 대한 제3상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뇌종양 환자 자신의 혈액에서 만든 면역세포치료제가 종대한 부작용 없이 뇌종양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1.5배, 질환조절효과가 30%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민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취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김재민 교수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56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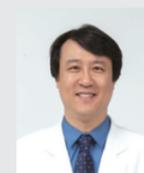
한명훈 교수,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한명훈 교수가 지난 9월 29일에서 열린 '제56차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천막상 심부 뇌실질내 출혈양의 예측 변수들과 아시아인들에서 그 변수들의 단기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혈관부문 최우수 논문상인 이헌재 학술상을 수상했다.



고성호 교수,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과 고성호 교수의 논문이 세계 최고의 저널로 인정받는 '네이처 메디신'에 게재됐다. 논문 제목은 '외상성 뇌 손상의 혈관주위세포와 신경에 일산화 탄소의 이중효과로, 소량의 일산화탄소를 잘 활용할 경우 외상에 의한 다양한 뇌신경 손상 질환들에서 새로운 개념의 치료법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임태호 교수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임태호 교수팀(재난대응융합기술 연구센터 송영탁 연구교수, 안치

원 임상강사이) 지난 10월 18일 양재동 KOTRA 대강의실에서 '제4회 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재원 교수, 해외 학회 초청 강연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가 지난 10월 17일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아시아태평양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 학술대회'에 초청되어 '기후변화와 알레르기질환의 다양성 특히 꽃가루 알레르기와의 연관성'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정진환 교수, 뇌혈관내수술인증의 자격 취득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정진환 교수가 최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뇌혈관내수술인증의 자격을 취득했다. 인증자격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이다.



백은미 계장, 서울시장 표창장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백은미 계장이 지난 9월 2일 시민청 태평홀에서 열린 '대사증후군 100만인 찾기' 돌파 기념행사에서 대사증후군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언론 속 한양인

TV와 신문에 등장한 한양인을 소개합니다.
2016년 8월 ~ 2016년 9월

한양대학교병원 오재훈 응급의학과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8월 2일/ 폭염 속 두통 등 이상증세... "열사병 전단계", 8월 4일/ 전국 폭염에 건강관리 비상... 외출 자제해야, 9월 14일/ 연휴 응급사고 '빈발', 가까운 응급실 파악해둬야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KBS [한주간의 건강이슈]/ 8월 11일/ 생활습관의 병, 역류성 식도염, 연합뉴스TV [뉴스]/ 9월 7일/ 추석 앞두고 콜레라 등 감염병 '비상' 손씻기가 최선 **박성열 비뇨기과 교수** MBN [천기누설]/ 8월 14일/ 폭염, 이 질병이 위험하다! **김상현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8월 18일/ 만성폐쇄성폐질환, KBS2TV [생생정보]/ 8월 24일/ 실내공기오염 **김경수 심장내과 교수** 연합뉴스TV [뉴스]/ 8월 31일/ 가을이 성큼... 큰 일교차에 호흡기, 심장 주의, 9월 25일/ 환절기 심근경색 등 돌연사 위험, 과음 후 아침은 동 금물 **노성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세상에이런일이] / 9월 8일/ 종합 감기약에 빠진 남자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SBS [세상에이런일이] / 9월 8일/ 종합 감기약에 빠진 남자, KBS1R [라디오주치의]/ 9월 13일/ 올바른 음주방법과 간, KBS1TV [생로병사의 비밀]/ 9월 21일/ 혈관을 겨누는 화살, 짠맛 중독 **김희진 신경과 교수** 채널A [닥터지바고] / 9월 19일/ 환절기 뇌혈관 질환 완전정복, YTN사이언스 / 9월 28일/ 40대에도 치매가? 초로기 치매 원인과 예방법 **황환식 가정의학과 교수** SBS [모닝와이드] / 9월 22일/ 지방의 역할, 돼지비계는 착한 기름?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 9월 28일/ 몸도 마음도 일찍 닫혀 버린 아이-두개골 조기유합증 2살 황선우 **김미정 재활의학과 교수**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 9월 28일/ 몸도 마음도 일찍 닫혀 버린 아이-두개골 조기유합증 2살 황선우 **최규선 신경외과 교수** KBS1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 9월 29일/ 3분에 3번 연속 뺑소니-광란의 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강보승 응급의학과 교수** YTN [헬스플러스라이프] / 8월 4일/ 알코올 분해효소 중 하나인 ALDH2의 4건 **오재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KBS1R [라디오주치의] / 8월 5~7일, 12~14일, 19~21일, 26~28일, 9월 2~4일, 9~11일, 23~25일, 30일, 연합뉴스TV [뉴스] / 8월 17일/ 폭염 속 개학 "아이들 탈수 잘 돼 온열질환 위험" **김지은 감염내과 교수** YTN [뉴스] / 8월 23일/ 15년 만에 콜레라... C형 간염 감염에 집단식중독까지, YTN사이언스 / 9월 19일/ 손씻기, 감염 질환 예방 효과는? **이창범 내분비대사내과** SBS [모닝와이드] / 8월 25일/ 내 몸을 살리는 골든 사인, 당뇨,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8월 30일/ 인슐린의 비밀, KBS [비타민] / 9월 1일/ 콜레스테롤 **김충현 신경외과 교수** MBC [뉴스] / 9월 30일/ 악성뇌종양, 면역세포치료로 생존기간 1.5배 연장, 한국경제TV / 뇌종양 환자 무진행 생존기간 1.5배 연장 **한양대학교류마티스내과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KBS2TV [생생정보] / 8월 27일/ 무릎관절건강

한양대학교병원 조현석 이비인후과 교수 한겨레 / 8월 12일/ 단순 코골이는 금연·금주로 개선 **배현주 감염내과 교수** 중앙일보 / 8월 22일/ [건강한 가족] 100가지 넘는 항생제... 제대로 알면 약, 모르면 독 **전대원 소화기내과 교수** 헤럴드경제 / 8월 31일/ C형 간염 백신 없는데... 개발 못 하나? 안 하나? **이춘용 비뇨기과 교수** 국제뉴스 / 9월 7일/ 어르신, 건강충전하고 건강한 노후도 보내세요 **이항락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9월 7일/ 바이러스성 장염 환자의 33% 면역력 낮은 5세 미만 영유아, 건강다이제스트 / 9월 13일/ 더부룩...답답...속쓰림까지~ 소화장애 SOS **김이식 정형외과 교수** 헤럴드경제 / 9월 10일/ 노인의 고관절 골절 예방 돕는 네 가지는? 외 1건 **안동현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서울신문 / 8월 18일/ [메디컬 인사이트] 우리 아이 스마트폰 언제 허용해야 할까 **고주연 피부과 교수** 조선일보 / 9월 19일/ 기미 환자 3명 중 2명은 자외선 노출 탓 외 1건 **박동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9월 21일/ 고령화 시대 위협하는 결핵... 노년층 절반 결핵균 감염 상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고아라 산부인과 교수** 조선일보 / 8



월 10일/ 누운 자세로 하는 운동, 임신부 혈액순환 방해 **김창렬 소아청소년과 교수** 국민일보 / 8월 18일/ 저출산 시대의 이룬동이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은창수 소화기내과 교수** 조선일보 / 8월 24일/ 내시경 하면 할수록 손해, 소독 수가 0원, 9월 14일/ 10mm 또는 3개 이상 용종 뚫었다면 3년 내 대장내시경 추적검사 해야 **심재항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중앙일보 / 8월 29일/ 연관통 치료 어떻게 할까, 이데일리 / 9월 6일/ 철삭등이 매년 3만 명... 의료비 감당못해 파산도, 조선일보 / 9월 7일/ 대한통증학회, 생활 속 통증 관리 7계명 발표 **김충현 신경외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 9월 30일/ 면역세포치료제, 교모세포종 무진행 생존 1.5배 연장 외 3건, 이데일리 / 9월 30일/ 교모세포종 임상 지원... 연구 결과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최찬범 류마티스내과 교수** 한겨레 / 8월 25일/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날씬한 제가 무릎 관절염이냐? 조, 조선일보 / 9월 7일/ 류마티스관절염 환자 20%, 뼈 망가진 후 진단 **박시복 관절재활의학과 교수** 한겨레 / 8월 25일/ 고정식 자전거, 무릎 근육 강화에 도움

Event

Quiz

한양대학교병원 심장내과 박진규 교수의 전문으로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불규칙하게 되는 심장 질환의 한 종류는 무엇일까요?

QR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블로그(news.hyumc.com)로 이동합니다. 소식지와 블로그에 있는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참고하세요. 12월 20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9+ 10월호 이벤트 당첨안내

많은 분들이 지난호 이벤트에 참여했습니다. 당첨된 10분께는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렸습니다.

- 당첨자
- | | | | | |
|-----------------------|------------------------|-----------------------|------------------------|----------------------------|
| 백** ak***@nate.com | 김** rta***@hanmail.net | 한** nemo***@hyumc.com | 남** wishw***@naver.com | 고** asa***@naver.com |
| 이** ldu1***@naver.com | 강** suhee***@hyumc.com | 조** jo***@naver.com | 민** drseu***@naver.com | 김** zunekaz***@hotmail.com |



http://wp.me/p70KzE-4lw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 앱을 다운받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강지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미성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육원	영상의학과	나현영	제3중환자실	박종주	본관7층
강지연	본관6층	김미화	보험심사팀	김은미	신생아중환자실	남순영	본관5층	박주은	분만실
강지원	기획팀	김미희	동관7층	김은실	소아청소년과	노광규	인사총무팀	박지경	영양팀
강혜영	영상의학과	김민선	영양팀	김은주	응급의료센터	노옥경	제3중환자실	박지애	Q팀
강해숙	영양팀	김민아	본관10층	김은지	본관10층	노옥석	동관7층	박지혜	인공신장실
고희경	2층내과	김민정	아비인후과	김은희	수술실	노창완	영상의학과	박진욱	보험심사팀
공경숙	신생아중환자실	김민정	인공신장실	김인호	약제팀	류중백	시설팀	박진희	인공신장실
공지연	심장센터	김민정	중앙공급실	김지윤	헤민정간강의학과	모지은	소화기내과	박춘아	수술실
곽동원	영상의학과	김민희	국제행정지원팀	김재희	영상의학과	문미영	의무기록팀	박현정	피부과
권난희	영양팀	김민희	2층내과	김정달	진단검사의학과	문미영	이식센터	박현혜	본관8층
권미화	호흡기내과	김백수	동관7층	김정민	본관10층	문상희	내과중환자실	박현화	마취후회복관리실
권보미	내과중환자실	김병숙	원무팀	김정숙	고객지원팀	문영민	영상의학과	박혜정	건강검진센터
권신미	본관6층	김보미	신경외과	김정안	본관7층	문재봉	시설팀	방민주	제3중환자실
권연희	영양팀	김상미	본관10층	김정연	외과	문정희	본관9층	방상주	대외홍보팀
권오근	인사총무팀	김상훈	약제팀	김정희	영양팀	문한숙	외과	배순석	수술실
권용덕	마취통증의학과	김상희	본관11층	김주희	응급의료센터	문희애	본관6층	배은희	보험심사팀
권유진	응급의료센터	김석현	정신건강의학과	김준식	진단검사의학과	민현숙	약제팀	백필선	외과
권은진	아비인후과	김선영	고객지원팀	김중식	수술실	박경림	보험심사팀	백형정	약제팀
권혁천	고객지원팀	김선영	영상의학과	김창금	영양팀	박경미	비뇨기과	백해연	수술실
권현숙	본관5층	김선주	인공신장실	김철한	재무팀	박경숙	간호국	변다솜	본관10층
권혜영	인공신장실	김선화	뇌졸중전문치료실	김초롬	본관5층	박경희	중앙공급실	서명진	주사실
김경수	본관6층	김선애	본관17층	김초롬	본관6층	박근배	보험심사팀	서병갑	영상의학과
김경숙	집중영양치료실	김성철	병리과	김춘애	영양팀	박명경	외과	서소연	소아청소년과
김경실	본관5층	김성훈	영상의학과	김태근	병리과	박명호	환자이송반	서소연	응급의료센터
김경우	진단검사의학과	김세정	본관11층	김태호	재활의학과	박미숙	영양팀	서승희	내과중환자실
김광영	고객지원팀	김소란	본관10층	김택순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박미순	원무팀	서승희	본관9층
김규식	비뇨기과	김소연	본관10층	김하연	응급의료센터	박미옥	교육연구팀	서영남	본관8층
김금례	인공신장실	김소영	동관7층	김현일	외과	박상혁	영양팀	서영은	본관5층
김기라	인사총무팀	김수연	보험심사팀	김현주	본관6층	박신아	진단검사의학과	서현주	진료협력팀
김기석	내시경실	김숙미	영상의학과	김현진	재활의학과	박선영	내과중환자실	설명길	의료정보팀
김나영	본관18층	김순식	노동조합	김현창	물류팀	박선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성경희	본관7층
김다솜	약제팀	김승희	인공신장실	김현희	2층내과	박상찬	진단검사의학과	성명순	사회복지팀
김대건	영상의학과	김이름	본관5층	김형근	진단검사의학과	박소은	영양팀	성혜윤	본관8층
김도와	내시경실	김애경	내과중환자실	김형석	약제팀	박수미	내과중환자실	손영성	본관9층
김도윤	정형외과	김양선	인공신장실	김형주	약제팀	박수정	수술실	손화선	대외홍보팀
김동관	진단검사의학과	김연정	재무팀	김혜리	본관17층	박순구	안과	송명선	본관10층
김란	본관5층	김연주	병동서무	김혜림	감염관리팀	박연희	수술실	송은경	진단검사의학과
김령	영양팀	김영미	아비인후과	김혜원	간호국	박예진	본관8층	송주영	2층내과
김령희	재무팀	김영선	본관5층	김황룡	진료부	박용범	기획팀	송현수	시설팀
김명환	영양팀	김영신	치과	김효준	물류팀	박유정	감염관리팀	송훈남	재활의학과
김미라	마취후회복관리실	김영연	심장센터	김휘원	본관5층	박은수	본관10층	신명희	치과
김미라	성형외과	김영일	홍보팀	김희나	주사실	박은영	인공신장실	신미숙	진단검사의학과
김미라	영상의학과	김영자	진단검사의학과	니소정	수술실	박은형	진료협력팀	신수지	수술실
김미성	인공신장실	김영진	신경외과	나윤숙	2층내과	박응범	비상계획계	신재철	의무기록팀
김미성	간호국	김영훈	물류팀	나인철	재활의학과	박점현	본관11층	신정미	영양팀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성명	직장명(소속)
오진영	2층내과	이경철	기획팀	이은명	약제팀	전경신	본관8층	최문정	본관5층
오홍석		이경하	정신건강의학과	이은애	본관11층	전미선	간호국	최미옥	치과
오화경	수술실	이경희	인공신장실	이은영	신장내과	전형수	대외홍보팀	최민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오희순	응급의료센터	이관석	원무팀	이은주	보험심사팀	전효선	수술실	최선미	인공신장실
옥상열	홍보팀	이규택	신경과	이은형	본관6층	정경은	본관5층	최선희	진단검사의학과
우순희	수술실	이금란	인공신장실	이은희	인공신장실	정기영	영상의학과	최성은	교육연구팀
우정미	고객지원팀	이나리	본관10층	이정식	보험심사팀	정대천	원무팀	최세연	원무팀
원혜정	부속실	이나영	수술실	이정애	병리과	정선주	내과중환자실	최소담	영상의학과
원홍석	인사총무팀	이두리	제3중환자실	이정은	시설팀	정선희	인공신장실	최순애	인공신장실
위영현	약제팀	이두중	핵의학과	이정인	당뇨센터	정수정	본관5층	최승희	본관10층
유고은	본관10층	이명숙	병리과	이정화	아비인후과	정애용	심장센터	최신자	진단검사의학과
유미화	물류팀	이명주	약제팀	이정화	신경과	정유정	본관17층	최영선	인공신장실
유병호	내과중환자실	이미경	영양팀	이정화	소아청소년과	정은영	수술실	최윤희	신생아중환자실
유선길	건강검진센터	이미경	보험심사팀	이종열	치과	정일웅	의료정보팀	최은영	본관8층
유선정	아비인후과	이미란	본관6층	이주영	인사총무팀	정임중	응급의료센터	최재범	원무팀
유숙	병리과	이미자	본관11층	이주현	중앙공급실	정재순	마취통증의학과	최정연	대외홍보팀
유영미	내과중환자실	이미정	본관10층	이주현	본관6층	정정미	본관10층	최정훈	2층내과
유은희	제3중환자실	이미정	중앙공급실	이지현	심장센터	정지현	응급의료센터	최종석	영상의학과
유정안	중앙공급실	이민지	본관5층	이진주	응급의료센터	정현정	진단검사의학과	최중은	보험심사팀
유정자	마취후회복관리실	이민진	건강관리팀	이하랑	마취후회복관리실	정혜영	내과중환자실	최진실	본관5층
유주량	본관5층	이상미	제3중환자실	이현아	본관7층	정훈	의료정보팀	최창순	동관7층
유지학	인사총무팀	이상찬	차량계	이현주	본관7층	조경숙	인공신장실	최현구	본관9층
유현영	물류팀	이새롬	본관11층	이현주	원목실	조광희	본관9층	최현주	진단검사의학과
유현주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서윤	본관9층	이현중	영상의학과	조구성	영상의학과	최혜용	시설팀
유현주	건강검진센터	이선영	본관6층	이혜정	수술실	조규선	영상의학과	최희영	Q팀
윤경주	응급의료센터	이선화	본관9층	이호남	진료협력팀	조문형	원무팀	표은주	진단검사의학과
윤규리	본관10층	이선희	원무팀	이호문	영상의학과	조은영	영상의학과	표주연	병리과
윤미영	본관8층	이성모	물류팀	이호용	영상의학과	조인욱	진단검사의학과	허경애	마취후회복관리실
윤선미	영양팀	이성미	신경외과	임경숙	사회복지팀	조현교	진단검사의학과	하은영	약제팀
윤선애	본관6층	이소연	응급의료센터	임경순	신경외과	조현일	시설팀	하지윤	원무팀
윤선희	영양팀	이수연	시설팀	임다현	본관10층	조형필	재활의학과	한미경	신생아중환자실
윤아름	본관10층	이수진	수술실	임신경	본관11층	조환영	중앙공급실	한상운	원무팀
윤은정	신생아중환자실	이숙	고객지원팀	임연희	진단검사의학과	주찬미	본관7층	한수진	본관10층
윤인숙	본관20층	이숙희	마취후회복관리실	임은실	응급의료센터	지미경	보험심사팀	한승희	수술실
윤정아	외과	이순자	본관5층	임은자	아비인후과	지은아	산부인과	한아영	수술실
윤정희	약제팀	이승호	영상의학과	임인자	수술실	지혜정	의료정보팀	한정연	성형외과
윤지선	본관6층	이연우	신생아중환자실	임인현	병동서무	진수희	내시경실	한주희	심장센터
윤형순	진단검사의학과	이연주	정형외과	임정연	시설팀	진춘희	영양팀	한초롱	본관10층
윤현숙	마취후회복관리실	이영미	신생아중환자실	임주아	정형외과	천경희	의료정보팀	한현남	영양팀
윤현순	고객지원팀	이영주	2층내과	임지영	영양팀	천다혜	본관9층	한현수	의료정보팀
윤희정	인공신장실	이에린	신생아중환자실	임천식	고객지원팀	천영복	물류팀	한현정	보험심사팀
윤희재	내시경실	이유리	제3중환자실	임화영	비뇨기과	천은미	소아청소년과	함명자	보험심사팀
이가희	응급의료센터	이윤미	심장센터	장선정	신생아중환자실	천은선	외과	함연순	외과
이강연	비상계획계	이윤진	응급의료센터	장윤주	약제팀	최규호	마취통증의학과	허성미	본관8층
이경은	영상의학과	이은경	인사총무팀	장정아	육아지도실	최다울	신생아실	허정현	심장센터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한양대학교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대표전화 : 02 - 2290 - 8114 ■ 응급실 : 02 - 2290 - 8282 ■ 전화예약 : 1577 - 6382 ■ 진료의뢰센터 : 02 - 2290 - 9717 http://m.hyumc.com

Hanyang Calendar

11 November

11.4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건강강좌
두통이야기
- 신경외과 김충현 교수
오후 3시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11.11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클래식 기타 연주
- 유원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14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주
- 아람패밀리
오후 2시 30분
7층 정신건강의학과 안정병동

11.16 WED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 피아노 듀오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18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한양밴드
- 김선영 영상의학과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22 TUE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장기이식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 장기이식센터
오후 12시
장소 미정

11.25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피아노 연주
- 전재홍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1.26 SAT
한양대학교병원 건강강좌
루게릭병의 재활 운동
- 재활의학과 김태근 교수
오전 9시 30분
본관 3층 강당

12 December

12.2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다미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5 MON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내밀음악회
- 색소폰, 바이올린, 플룻 연주
오후 7시
본관 1층 로비

12.16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바이올린연주
- 안명진(비엔나 국립대학)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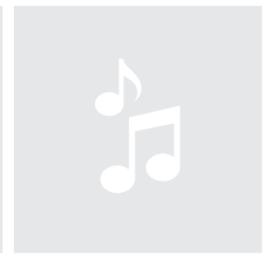
12.17 SAT
한양대학교병원
루게릭병 환우 송년회
- 신경과 김승현 교수
오전 10시
본관 3층 강당

12.20 TUE

한양대학교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벤에셀 합창단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23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워드 앙상블
- 정애화(성악), 플룻앙상블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12.30 FRI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사랑의 음악회
합창
- 에벤에셀 합창단
오후 12시 30분
본관 1층 로비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진료분야
소화기내과 2290-8303	최호순	수, 금, 토(1주)	월	간질환, 담낭, 담도, 회장
	윤병철	월, 목	수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이오영	이오영	월, 수, 토(2주)	화, 목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전대원	월~목, 토(3주)	수, 금	간질환
이항락	이항락	금, 토(4주)	월, 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이강녕	화	목, 금	식도, 위, 장질환, 용종, 조기암, 내시경절제술, 각종치료내시경
곽주희	곽주희	월, 화	수,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임동휘	수, 목	월~수, 금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지영	이지영	금, 토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이혜영	금, 토	목	일반 소화기내과질환
심장내과 2290-8700	김경수	화, 목, 토(2주)	화, 금	허혈성심장질환, 심혈관중재술, 심장중재술, 협심증, 고혈압
	신진호	월, 수, 금, 토(4주)	수	심부전, 심혈관중재술
임영효	임영효	수, 금, 토(3주)	월, 수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심부전, 말초동맥질환, 일반심장질환
	박진규	월, 화, 목, 토(1주)	목	부정맥, 실신, 급사, 심장전기생리검사 및 전국도자절제술, 심박동기
신장내과 2290-8300	강종명	월, 화, 수, 금	화, 목	사구체신염, 만성신부전증, 신장이식, 혈액투석
	김근호	월, 금, 토(3,4주)	화, 목	전해질장애, 고혈압, 심부전, 부종, 복막투석
박준성	박준성	수, 목, 토(1,2주)	월, 금	사구체신염, 신장이식, 혈액투석, 복막투석
	최중욱	화, 목, 토(3주)	월, 수	일반 신장내과질환
내분비내과 2290-8300	안유현	월~목, 토(2주)	수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뇌하수체
	최용환	월, 수, 금, 토(1주)	월, 화	당뇨병, 갑상선, 골다공증, 비만
김동신	김동신	월, 수, 목, 토(3주)	수, 목, 금	당뇨병, 뇌하수체, 갑상선
	박정환	화, 토(4주)	수, 목, 금	일반 내분비내과질환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2290-8302	윤호주	월, 수, 토(4주)	수, 목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손장원	월, 화, 목, 금, 토(2주)	월, 화	폐결핵, 폐렴, 폐암
김상원	김상원	화, 금, 토(1주)	월, 화	천식, 알레르기, 면역성폐질환
	박동원	수, 토(3주)	월, 화, 목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구건우	구건우	수, 금	수,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구건우	수, 금	수, 금	일반 호흡기내과질환
중환자실	구건우	월~금	월, 화, 목	중환자실전담전문의(08:30~17:30)
혈액종양내과 2290-8300	이영열	월, 수	화, 목	만성백혈병, 골수종, 림프종, 골수, 기타혈액질환
	박병배	화, 목	월, 금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두경부종양, 뇌종양, 비뇨생식기계종양, 육종
염지은	염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염지은	금	월, 화, 수	급성백혈병, 골수이형성증, 재생불량성빈혈, 조혈모세포이식
감염내과	배현주	목	월, 목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클리닉
소아청소년과 2290-8380	설인준	화, 목	월, 수	소아신경 및 근육질환, 소아간질
	오성희	목, 금	월, 화	소아간질질환
제대혈클리닉	김남수	월, 수, 토(2주)	목	소아심장질환
	이영호	월(구), 토(4주)	화, 목	조혈모세포이식, 소아혈액, 소아암
김용주	김용주	월, 수, 토(1주)	수, 목	소아소화기영양
	박현경	화, 토(3주)	수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이현주	수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이현주	수	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육아지도실 2290-8871	박현경	월	월	육아상담실, 신생아 및 미숙아질환
신생아 중환자실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08:30~17:30)
	이현주	월, 화, 목, 금	월~목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08:30~17:30)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진료분야
신경과 2290-8367/ 8368	김주한	월, 수	월, 수	간질, 실신, 수면장애, 하지불안증후군
	김승현	월, 금, 토(1주)	월, 금, 토(1주)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치매 및 루게릭병
세포치료센터 &클리닉	김희태	화, 수, 목	목(파킨슨)	이상운동질환(파킨슨), 손떨림, 뇌졸중
	김현영	수, 금, 토(2주)	화, 수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경동맥협착
2290-9377	김희진	화, 금, 토(3주)	화, 금	치매 및 인지기능장애, 뇌졸중
	김영서	월, 화, 토(1주)	월, 목	뇌졸중, 두통, 어지럼증
서관 7층	오기욱	월, 금, 토(4주)	월, 금, 수	말초신경계질환, 근육병질환, 두통
	박진석	화, 토(2,4주)	목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두통, 일반신경과질환
하승현	하승현	수, 토(1,3주)	금	말초신경, 두통, 치매, 안면마비, 일반신경과질환
	하승현	수, 토(1,3주)	금	말초신경, 두통, 치매, 안면마비, 일반신경과질환
정신건강의학과 2290-8419	안동현	수, 토(4주)	월, 수, 목	소아정신의학, 발달장애, 과잉행동증후군
	노성원	화, 금, 토(2주)	화, 금	정신약물학,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민아란	민아란	월, 목, 토(1,3주)	월, 목	노인정신의학, 정신신체의학, 일반정신과질환
	민아란	월, 목	목	소아정신의학
피부과 2290-8434	노영석	월, 화, 목, 토(2주)	월	아토피 피부염, 여드름, 탈모, 건선
	고주연	해 외	수	연 수
김정은	김정은	월, 수, 토(1,3주)	화, 금	피부미용, 레이저, 색소질환, 건선, 백반증,
	김은진	금, 토(4주)	화, 수, 목	대상포진, 무좀 및 진균성 질환, 피부암
김은진	김은진	금, 토(4주)	화, 수, 목	일반 피부질환
	김은진	금, 토(4주)	화, 수, 목	일반 피부질환
외과 2290-8444	권성준	수, 금	수	위, 십이지장질환
	권오정	월, 금	수, 목	이식, 혈관질환
이강홍	이강홍	수, 목, 토(1주)	월	간,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정민성	화, 목, 토(2주)	화	간, 간이식, 담도, 췌장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하태경	하태경	목	월, 목(모토)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로봇수술
	안병규	화, 토(4주)	목, 수, 금	유방질환, 유방암, 갑상선종양
김성후	김성후	화, 토(3주)	수, 금	복강경/로봇수술, 비만대수술, 복강경정장수술
	윤태인	금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일반 외과질환, 복강경수술, 지방종
윤태인	윤태인	금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지방종
	윤태인	금	수, 금	대장항문질환, 복강경수술, 지방종
소아외과	하태경	월		복강경/소아외과수술, 선천성질환, 탈장수술
흉부외과 2290-8461	김영학	화	화, 금	관상동맥질환, 심장판막질환, 신장이식
	정원상	화, 목	화, 목	폐 및 식도외과, 종격동, 흉강경수술, 폐이식
김혁	김혁	월, 수	월, 수	심장판막질환, 선천성 심장질환,
	김혜선	월, 수, 금	월, 수, 금	흉강경수술, 대동맥수술
김혜선	김혜선	월, 수, 금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김혜선	월, 수, 금	월, 수, 금	일반 흉부(폐, 종격동 및 식도) 질환, 흉강경수술
정형외과 2290-8473	김태승	토	월, 목, 금	사지근골격계종양 클리닉, 소아정형외과
	이광현	월, 수, 금	수	수부외과클리닉(미세수술), 주관절학
최충혁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최충혁	월, 수	수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성일훈	성일훈	화, 목	화, 목	족부클리닉, 당뇨발, 변형교정, 스포츠의학
	강창남	월	화, 월, 수	척추클리닉, 골다공증
이봉근	이봉근	해 외	수	연 수
	김이석	목, 금	화	고관절클리닉, 외상학, 골다공증, 스포츠의학
황규태	황규태	화, 목	화	고관절, 골절, 외상(스포츠손상),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황규태	화, 목	화	근골격계 다발성 손상
이진규	이진규	화	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이진규	화	월, 목	슬관절클리닉(관절경학, 인공슬관절치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조영훈	금	수,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조영훈	금	수, 금	견관절클리닉, 관절경, 외상학, 미세수술, 스포츠의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용	월, 수	월	뇌혈관질환, 미세극소침습뇌수술,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김영수	화	화, 목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통성질환, 뇌종양
	백광홍 이형중	월, 수 목	금 화	디스크, 요통, 척추질환, 내시경디스크수술, 척수종양,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전형준 최규선	해 외 금, 토	수	연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손상, 뇌졸중(중풍), 두통, 퇴행성 신경손상
	이건일	금	목, 금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정태	월, 금	수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윤진호 김연환	월, 수 화, 목, 토(2,4주)	목, 금 화	비만성형, 미용성형, 뺨띠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목형
	윤승기 임수연	토(1주) 토(3주)	금 수	일반성형외과질환
	황정혜	화, 수, 목, 금	월	일반 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폐경, 불임, 시험관아기
산부인과 2290-8400	최중섭	월, 수	수, 금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일반 산부인과, 고위험임신, 조산,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이원무 엄정민	해 외 화, 목, 토(2,4주) 금, 토(1,3주)	화, 목 월, 수	연 수 일반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은현	월, 수	금	
	엄기방 이병로 임한웅 안성준	월, 수 화, 목, 토(3주) 금, 토(4주) 토(1, 3주)	금 목 월, 수 월, 화	녹내장, 백내장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 망막증
안과 2290-8570	박철원 김경래 태 경	화, 금, 토(3주) 목, 토(2주) 월, 수	화 월, 목 수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화, 토(1주)	화, 금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후두음성질환, 인후두역류질환, 소아비인후과, PITA편도수술, 갑상선암, 두경부암
	송창면	수, 목, 토(4주)	월, 목	일반비인후과,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난청, 어지럼증, 이명
정주환	금	수		
비뇨기과 2290-8593	이춘용	월, 토(1주)	화, 목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염
	박해영 김용태 박성열	수, 금, 토(2주) 화, 목, 토(4주) 수, 목, 토(3주)	월, 수 수, 금 월	신장이식 및 남성과학, 신결석, 전립선질환, 비뇨기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전립선질환, 비뇨기종양, 신장질환, 신장석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신결석, 소아비뇨기 질환
	이호원 조정기	월, 토(2,4주) 화, 금, 토(1,3주)	화, 금 목	전립선질환, 신결석, 배뇨장애, 방광염, 알반비뇨기과질환 일반비뇨기과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김태곤	월, 수(1,3,4주), 토(4주) 화(1-3주), 목, 토(1주) 월▲	월(2,4주), 수(1,3,4주) 화,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 재활, 척추손상 재활 루게릭클리닉(사관 7층 세포치료센터)
	방사선종양학과 2290-8614	전하정 박혜진	월, 수 월~금	화, 수, 목 월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핵의학과 2290-9260	최윤영 이수진	토(1,3주)	수 월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일반진료
치과 2290-8671	이영수 황경균	목, 금 월, 화, 목	월, 화, 목 월, 화	임플란트, 원전/부분틀니, 심미보철 턱알균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침샘질환(타액선), 코골이장치
	박창주 한지영 김태건 김주형 심광섭	화, 목, 금 월~금 월, 화, 수 월, 화, 목 화, 금	화, 목 화, 금 월, 화, 수 월, 수, 목, 금 수	턱알균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행법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턱알균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2290-9720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용주 하태경	월 수	목 금 월, 수	
가정의학과 2290-8738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수, 금, 토(2주) 월, 화, 목, 토(4주)	월 화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건강증진의학
직업환경의학과 2290-9777	송재철 이수진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월, 화(2,4주), 목 화(3,5주),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2290-9216	유대현	월, 화, 목, 토(1주)	화,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전재범 김태환 성윤경 최찬범	월, 수, 목, 토(3주) 화, 수, 금, 토(1주) 화, 목, 토(1주) 월, 화, 수, 금, 토(4주) 월, 수, 금, 토(4주)	월, 목 목, 금 월, 화, 목 수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프스, 강직성척추염, 골다공증, 소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프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병, 베체트병, 간선관절염, 혈관염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프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병, 류마티스 · 골관절염, 류프스, 강직성척추염, 섬유근통, 소그렌병
관절재활의학과 2290-9226	박시복 이규훈	수, 금, 토(3주) 월, 화, 목, 토(1주)	월, 수 화, 목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통증의학과 2290-9216	심재철	월, 수, 목, 금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골 · 관절외과 2290-9216	최종혁		월	슬관절물리치료(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해 외		연 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ARS) 2290-9550	윤호주 박훈기 황환식 박계영 김정현	화 수 월~금, 토(2,4주)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수 월, 목 목, 금	폐암, 폐결핵, 폐렴, 간질성폐결핵 스포츠의학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가정의학 Global healthcare, 심장내과
	여행자 클리닉 배현주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클리닉, 여행자 클리닉
성형외과 국제진료	김정태 김연환	월, 목 화, 금	수, 금 목	재건성형수술, 유방, 두경부, 사지재건, 미세수술, 미용성형 미세재건수술(사지재건), 안면골절 및 외상, 미용성형(코), 일반성형, 피부종양, 피부반흔교정, 목형

* 2016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전용철 은창수 유교상 박찬혁 정재윤	월, 목 월, 금 수, 금 화, 수, 토(2,4주) 수, 목, 토(1,3주) 수, 목, 토(2,4주)	화 수 월 목 수, 금 화, 금	소장, 대장질환(염증성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장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소화기, 위장관질환, 식도암, 위암 간질환(간염, 간경변증, 간암), 소화기질환
심장내과	김순길 최성일 박한철 신정훈	월, 화, 목, 금 수 수, 목, 토(1,3주) 월, 토(2,4주)	목 월, 수, 금 화 화, 목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장중재술 고혈압, 부정맥질환 고혈압, 허혈성심질환, 심부전
	한상용	월, 목,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 고혈압, 사구체신염, 투석요법
신장내과	이주학	화, 수, 토(1,2,3주)	월, 목	특발성부종, 전해질이상질환, 만성콩팥병, 고혈압
	이은영	토(4주)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사구체신염
내분비내과	이창범 유상훈	화, 금, 토(1-3주) 월, 금, 토(4주)	월, 수 화, 목,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화(최, 수, 토3주)	월(초), 화, 수(초), 목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류프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류마티스내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방소영	월(초), 화, 수(초), 목, 금, 토(2,4주)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류프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인수민	월(초), 화, 수(초), 토(1주, 2-4주, 최)	월, 화, 목(초),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통풍, 류프스, 베체트병, 만성통증
호흡기내과	김태형 문지용 박태선	월, 수, 목, 토(2,4주) 화, 금, 토(1,3주) 수, 금	화 월, 목 수, 금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결핵, 폐암, 중환자관리 만성기침, 천식, 만성폐쇄성질환, 결핵, 폐암 중환자치료, 호흡부전, 폐렴, 기관지내시경
	중환자실 혈액양성내과	박태선 최정혜 원영웅	월~토 화, 목, 토(2,4주) 월, 수, 금, 토(1,3주)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형암
감염내과	김지은	월,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예방접종
	김창렬 오재원 문진화 이영호 김남수 김지혜 최영진	화, 수, 금, 토(4주) 화, 목 월, 수, 금, 토(1주) 월 수, 토(2주) 월, 목, 토(3주)	화 월, 목 월, 수 수, 목, 금 화, 목, 금	신생아학,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신경질환 소아혈액종양 소아신장질환 소아내분비질환, 성장, 의학유전질환 소아호흡기질환
신경과	이영주 이규용 고성호 최호진 임성환	화, 금 월, 수, 목 월, 수, 목 화, 목, 토 화, 수, 금	화, 목, 금 월, 수 월, 수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러움증, 하지불안증후군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뇌졸중, 신경퇴행성질환(치매, 파킨슨병) 치매, 뇌졸중, 두통 뇌졸중, 두통, 어지러움증
	정신건강 의학과	박용천 김대호 최준호	월, 목 화, 목, 토(1,3주) 월, 수, 금, 토(2,4주)	월, 목 화, 수(월, 토), 금 수
신경외과	김충현 김재민 정진환 류제일 한명훈	월, 금, 토(4주) 수, 목, 토(3주) 월, 토(1주) 화, 수 목, 금, 토(2주)	화, 수 월 화, 목 금 월	뇌종양, 뇌졸중, 척추 및 말초신경질환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척추질환(최소침습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뇌종양, 뇌경위기능, 두부외상
	흉부외과	이철범 노선균	월, 목 화, 수	월 화, 목
남승혁	금	수, 금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박예수 김중현	월, 수, 금 수, 금 목, 토(3주)	수 월 화, 수	인공관절 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무릎관절염, 스포츠손상 (인공관절, 관절경수술)
	박기철 이정일 송중훈	화, 목, 토(2주) 월, 토(1주) 화, 토(4주)	금 화, 금 월, 목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재건외과, 말초신경마비 견관절, 주관절, 외상
산부인과	이정환 정언석	월, 목, 토(2,4주) 수, 금	월, 목 수	산모,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자궁근종, 난소종양 단일암, 복강경수술(난소축, 자궁축, 부인암, 산모, 고위험산모)
	고이라	화, 토(1,3주)	화, 금	복강경 수술, 부인종양, 부인암 (자궁경부, 난소, 자궁내막)
성형외과	최승석 장정현 이장정우	월, 수, 금 해 외 화, 목, 토	월, 금 장 기 연 화, 목	말초신경 및 수부재건, 유방성형, 미용성형 연 수 안면외상, 옥창재건, 피부종괴, 미용성형
	남영수 이홍기 박현경 김한준 김민규 윤정아 김현일	월, 수 월, 수, 금 목 화, 금, 토(1주) 화, 금, 토(2주) 목, 토(3주) 토(4주)	목 목 화, 금 수 월, 금 수, 금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탈장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대장항문질환 상부 위장관 질환, 복강경 위절제술, 탈장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강민호 임한웅 신용운	수, 금 월, 토(2,4주) 토(1,3주) 월, 금, 토(2주)	월, 수 화, 금 화 수	녹내장, 백내장 외안부질환, 굴절, 백내장 안성형, 사시, 소아안과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피부과	유희준 김정수 강호송	월, 화, 금 수, 목, 토 화	화, 목 월, 수 수, 금	무좀 및 조각백선, 피부알레르기질환 피부미용, 피부외과, 소아피부질환 피부미용, 일반피부과질환
	이승환 정진혁	월, 수 화, 금	목 수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외이식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음성장애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이명, 어지럼증, 일반 및 소아비인후과질환 비부비동염, 비중격 비극증, 알레르기 비염, 일반비인후과 질환
비뇨기과	최홍용 문홍상	화, 목 수, 토(3주)	목 월, 금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김규식	월, 금, 토(1주) 토(2,4주)	화 화, 수	복강경수술, 비뇨기종양, 남성과학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만성통증 맞춤클리닉▲	장성호 한승훈	월, 금 화, 목	월, 수 화, 목, 금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소아재활클리닉,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손상, 뇌신경 재활,
	조형필	월, 수	목	만성통증 및 근골격계 재활, 뇌신경재활, 척추손상재활, 스포츠의학
치과	박원희 김윤영	월~목, 토(1,2주) 화, 금, 토(3,4주)	수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통증클리닉	심재항	월, 수, 금	월, 금
핵의학과	김지영	화	화	종양핵의학
직업환경학과	장태원	화	화	직업성질환, 업무관련성평가, 업무적합성평가

* 2016년 11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영역 최고 평가

한양대학교병원 '의료 질 평가' 최상위 1등급



한양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의 '2016 의료 질 평가'에서 최상위 1등급을 받아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특성화 센터와 전문 클리닉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 동남권역 유일의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급성중증질환 환자 진료에 주력하며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